

## 『찬도방론맥결집성』의 장원소 「진맥입식해」 연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교수

장우창\*

### A Study on the 「Zhenmairushijie」 by Zhang Yuansu in 『Chandobangronmaekkyulgipseong』

Jang Woo-chang\*

Professor at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Objectives** : By studying the contents of Zhang Yuansu's "Zhenmairushijie", which are introductory remarks of "Chandobangronmaekkyulgipseong", this study attempts to clarify the academic meaning expressed in it and consider his real significance.

**Methods** : First, based on previous studies on Zhang Yuansu and "Wangshuhemaijue", this study divides the contents of "Zhenmairushijie" into 4 chapters and read out the original text. Next, based on Zhang Yuansu's notes and other writings on the original text, this study examines contents in detail. Finally, based on the discussion,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ignificance of academic thoughts expressed in Zhang Yuansu's "Zhenmairushijie".

**Results & Conclusions** : "Zhenmairushijie" emphasizes the combination of nervation and Byeonggi in the process of feeling the pulse for diagnosis, the combination of Byeonggi and Yongyak to declare that the feeling of the pulse for diagnosis is the principle of differential diagnosis. The combination principle of nervation-Byeonggi can be found in comprehensive pulse methods of "Nanjing", and the combination of Byeonggi-Yongyak should follow Ohaeng's Bubuheoshilsajeongbosa principle. Pulse methods of "Wangshuhemaijue" integrated Byeonggi expressed in Uigyeong and Byeonggi in Gyeongbang in the process of the feeling of the pulse for diagnosis to present the principle of diagnosis to perform Byeongjeungronchi. Therefore, "feeling the pulse for diagnosis ipsik" is not only an introductory remark of feeling the pulse for diagnosis, but an comprehensive remark of whole diagnosis as well. It is an introductory remark of the entire medical field due to the nature of oriental medicine which emphasizes diagnosis.

**Key words** : Zhenmairushijie(診脈入式解), Zhenmairushi(診脈入式), Zhang Yuansu(張元素), Chandobangronmaekkyulgipseong(纂圖方論脈訣集成), Wangshuhemaijue(王叔和脈訣)

\* Corresponding Author : Jang Woo-chang.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el : +82-2-961-0735, E-mail : jangchang@khu.ac.kr

Received(February 7, 2019), Revised(February 13, 2019), Accepted(February 13, 2019)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I. 서론

張元素의 「診脈入式解」는 『王叔和脈訣』의 凡例인 「診脈入式」의 大義를 해명한 글로서, 허준 『纂圖方論脈訣集成』(이하 『纂圖脈訣』)의 맨 앞에 놓여 「診脈入式」과 함께 『纂圖脈訣』 전서의 범례 역할을 하고 있다. 『王叔和脈訣』의 「診脈入式」이 암송하기 쉽도록 총 530자의 7언 가결로 짜여진 간략한 글이라면, 장원소의 「診脈入式解」는 이를 264자로 해명한 더욱 함축적인 글이다. 『동의보감』은 대중에게 널리 공개할 목적으로 편성된 조선 의학의 학술 성과 전체를 대표하는 책인데 비하여, 『찬도맥결』은 의학교 내부에서 학습을 위해 활용되었던 전문적인 성격의 책이다.<sup>1)</sup> 따라서 『찬도맥결』의 범례에 해당하는 「진맥입식해」는 조선 의학교 내부에서 중시된 전문 지식의 성격을 가늠케하는 하나의 척도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지만 『왕숙화맥결』과 관련된 일부 제한된 연구를 제외하면 「진맥입식해」의 의학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sup>2)</sup> 장원소의 책이 아예 실전된 중국은 그렇다쳐도 한국에서마저 「진맥입식해」 관련 연구를 찾아볼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다소 복잡한 의학사적 맥락이 개입되어 있다.

일찍이 장원소의 「진맥입식해」는 그의 대다수 저서들과 함께, 『왕숙화맥결』 관련 주석서들과 한 운명이 되어 중국에서 잊혀졌다.<sup>3)4)</sup> 『왕숙화맥결』은

중국에서 송대 이후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면서 『찬도맥결』에 등장하는 通眞子 劉元賓, 希范子 李駟, 潔古 張元素와 그의 아들 雲岐子 張璧과 같은 인물로 대표되는 기간의 체계적인 연구 전통이 완전히 붕괴되었고 마침내 중국의학계에서 「王叔和」라는 서명마저 떼이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sup>5)</sup> 그런데 조선 건국 초기 중국에서 사라진 『왕숙화맥결』과 그 대표 주석들을 모은 책이 홀연 『찬도맥결』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여 조선조 전 기간을 관통하면서 지식사회에 『纂圖』, 『纂圖方』, 『纂圖脈』 등의 이름으로 거듭 거론됨을 보게 된다.<sup>6)</sup> 『찬도맥결』은 진맥을 중시한 조선 지식사회의 흐름 속에서 의학교에서 가장 중시된 전적 가운데 하나였으며, 특히 내의원 의사들에게는 필수적으로 배강이 요구되는 특별한 의미의 「講典」이었다.<sup>7)</sup> 선조는 이 책의 교정을 허준에게 명했으며 아들 광해군이 유지를 받들어 허준의 교정본을 간행함으로써 다행스럽게도 전란과 외세의 강점하에 조직적으로 진행된 內醫院 보존 의사의 망실이 라는 비운을 극복하고 『동의보감』과 함께 조선의학의 대표작으로 오늘에 전달되었다.<sup>8)</sup> 그 책의 첫머리에 장원소의 「진맥입식해」가 붙어 있다면 그 말미에는 허준의 跋文이 달려 있다. 허준은 여기에

판적 시각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정지옥, 戴同父의 『脈訣刊誤』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1) 『찬도맥결』이 조선 시대 과거와 취제에서 모두 중시되었음이 손홍열의 『한국중세의 의료제도 연구』에 기술되어 있다.(손홍열 저. 한국중세의 의료제도 연구. 서울. 수서원. 1988. pp.222-230.)
- 2) 필자의 조사로는 중국의 장원소 「진맥입식해」 관련 연구로는 許의 연구 1건을 발견하였다.(許聖賢. 脈訣對金元醫學氣血觀點的影響. 吉林中醫藥. 2009. 29(4). pp.361-362.) 이는 鄭金生의 『潔古老人註王叔和脈訣』에 기초한 것이다.
- 3) 김의 연구에 의하면 장원소는 『약주난경』, 『결고주왕숙화맥결』, 『산육보생방』, 『결고본초』, 『보결전씨방』, 『결고운기침법』, 『결고가진』, 『의방』, 『의학계원』, 『결고진주낭』, 『장부표본한열허실용약식』 등을 저술하였으나 이 가운데 『의학계원』, 『장부표본한열허실용약식』, 『진주낭』 등만이 전한다고 하였다. 그 외 張璧의 저서로 『상한보명집』, 『맥담』, 『운기자맥결』, 『논경략영수보사법』, 『의학신설』 등이 있으나 대부분 산실되었다고 하였다.(김용진. 장원소의 생애와 의학사상. 대한원전지학회지. 1990. vol.4. p.135.)
- 4) 정의 연구에서 『왕숙화맥결』의 전승 과정과 그에 대한 비

- 5) 陳無擇의 비판 이후 李時珍을 거치며 『왕숙화맥결』이 중국 의학사에서 도태되는 과정은 王의 연구에서 그 대략을 살펴볼 수 있다.(王大妹. 偽書脈訣對宋以後脈學發展的影響. 南京. 南京中醫藥大學學報. 2013. 14(2). pp.70-72.)
- 6) 조선의학에서 『찬도맥결』이 지니는 특별한 의미를 고찰한 것으로 許의 연구를 들 수 있다.(허중. 허준의 『찬도방론맥결집성』 편찬의 의의와 조선중기 맥학의 성취.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허중. 『찬도방론맥결집성』의 의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7) 『찬도맥결』의 背講 사실과 조선시대 의학교습에서 배강의 의미에 대해서는 류의 연구에서 상세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류경아. 원전학 교육에서의 背講 시험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8. 31(1). pp.57-78.)
- 8) 내의원 간행 의서의 목록은 김의 연구에서 볼 수 있다.(김중권. 조선조 내의원의 의서편찬 및 의학자료실에 관한 연구. 한국서지학회. 2009. 42. pp.345-380.) 조선 내의원의 학술활동을 소개한 중국에서 나온 논문도 있다.(朱承宰. 韓國朝鮮時代의內醫院和醫術編纂. 中華醫史雜誌. 1998. 28(2). pp.121-126.)

서 『왕숙화맥결』에 대한 지식사회의 오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 학술적 가치에 대해 의학사 전반을 아우르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조선 의학계의 『찬도맥결』에 대한 확고한 신뢰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왕숙화맥결』이 중국에서 지식사회의 비판과 거부에 직면하여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조선에서 부활한 『찬도맥결』은 내의원 내부에서 전수되는 길을 걸었다는 기묘한 상황을 반추하여 보면, 장원소 「진맥입식해」 연구가 거의 이루어질 수 없었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자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연구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다. 『찬도맥결』과 『동의보감』의 저자인 허준은 『동의보감』 안에 장원소 관련, 『왕숙화맥결』 관련 기록들을 상당 수 보존하였으니, 이들은 이 연구의 기본을 제공하는 것들이다. 또한 명대 이후 『왕숙화맥결』이 서적은 사라졌지만 그 학술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동의보감』에서 집중적으로 채록한 『醫學入門』, 『壽世保元』 등과 같은 대표적인 명대 종합의서들이 『왕숙화맥결』을 기준脈法으로 채용하여 활용한 흔적들을 상당히 남기고 있으니, 이들은 『왕숙화맥결』 연구에 참고할 만한 것들이다. 예컨대, 李梴의 『醫學入門』 集例에 “因病涉醫, 苦無統要入門, 叔和脈訣, 東垣藥性, 編註病機, 醫方捷徑, 醫學權輿, 非不善也.”<sup>9)</sup>라고 하여 의학의 입문서로 『왕숙화맥결』을 첫째로 꼽았으며, 본론의 맥법에서도 많은 내용을 직접 인용하거나 그 논리를 차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龔廷賢은 『壽世保元』에 범례에서 “脈訣 宗王叔和七表八裏, 總歸於劉三點浮沈遲數四脈, 正所謂有博則有約也 然知要則能守約, 守約則足以盡其博矣.”<sup>10)</sup>라고 하여 맥법은 『왕숙화맥결』을 宗으로 삼았음을 밝히고 있다.<sup>11)</sup> 장

원소의 저작들이 비록 대부분 사라졌지만 王好古 등 문인들의 저작에 그 단편들이 상당히 전하고 있으며, 근대에 세상에 나온 『醫學啓源』을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그의 학술사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니, 이들은 장원소 의학사상의 연구에 의미있는 자료들이다. 필자는 이상의 자료들을 검토함으로써 장원소 「진맥입식해」의 대체적 함의에 접근할 수 있는 단서들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일련의 고찰 과정을 통하여 장원소의 「진맥입식해」 저술 의도가 진맥을 중심으로 辨證論治 관련 주제들을 엮는 방식으로 일종의 진찰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데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 기반하여 장원소 「진맥입식해」에 대한 초보적인 연구로서 그가 해명한 「진맥입식」의 변증론치 패러다임의 전모와 그를 직조하는 논리들의 연결 및 관계를 드러냄을 주된 과업으로 삼았다. 『難經』 또는 『王叔和脈訣』과 관련된 개별적인 주제들, 그에 얽힌 복잡한 논쟁들은 이 연구의 과업 밖에 있음을 미리 밝힌다. 연구방법을 아래에 별도로 기술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 허준 『纂圖方論脈訣集成』의 원문은 內醫院 각본의 영인(김공빈 편역, 허준 저. 찬도방론맥결집성. 서울. 현동학당출판국. 2005.)을 기준으로 하였다.<sup>12)</sup> 아울러 장원소의 「診脈入式解」가 수록되어 있는 또 다른 저작인 『潔古老人注王叔和脈訣』(이하 『潔古注脈訣』)을 참고하였다. 이 책은 2002년 人民衛生出版社에서 출판된 海外回歸中醫善本古籍叢書 제1집(총12책)에 포함되어 있다. 이 총서는 주로 일본에 전하는 중국 의서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의 1차 결과로 간행된 것인데, 『潔古注脈訣』은 그 제1책에 『通眞子補注王叔和脈訣』, 『脈訣理玄秘要』, 『王叔和脈訣圖要俗解大全』 등 『왕숙화맥결』 관련 주석서들과 함께 수록되었다. 『통진

9) 진주표 역해, 이천 저. 의학입문.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89.

10) 李世華 等 主編, 龔廷賢 著. 龔廷賢醫學全書-壽世保元.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85.

11) 그 외 樓英은 『醫學綱目』에서 직접 『왕숙화맥결』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治法通論」에서 “莫若取法於潔古, 折衷於仲景湯液, 則萬世不易之大法也.”(진주표 주석, 樓英 著. 의학강목. 서울. 법인문화사. 2010. p.69.)라고 하여 장원소의 치법을 가장 중시하였음을 표명하고 있다.

12) 『찬도맥결』의 판본에 대해서는 장의 연구가 참고가 된다.(장우. 찬도맥결방론집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자보주왕속화맥결』, 『맥결이현비요』, 『결고노인주왕속화맥결』 3책<sup>13)</sup>은 『찬도맥결』과 함께 조선 내의 원에서 『왕속화맥결』 관련 주석서로 중시되었던 서적들이다.<sup>14)</sup> 鄭金生은 체계적인 교감 연구를 통하여 『찬도맥결』이 『결고주맥결』의 내용 전체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예의 『왕속화맥결』 관련 서적들의 교감에 허준 교정의 『찬도맥결』 원문을 활용함으로써 『찬도맥결』이야말로 이들 『왕속화맥결』 관련 서적들의 총화이자 진수임을 확증한 바 있다.<sup>1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도맥결』을 총서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니 허준 개간본 외에 중국의서로 확증가능한 판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장원소의 학술사상 관련 자료로는 20세기 들어 任應秋에 의해 소개된 『醫學啓源』이 매우 중요하며, 『保命集』의 일부 내용은 충분히 장원소의 저술로 볼 수 있다. 『保命集』의 저자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필자는 이 연구 과정을 통하여 그 가운데 일부는 확실히 장원소의 저술일 수밖에 없다는 확신에 이르게 되었다.<sup>16)</sup> 상권의 제논설 즉 「原道論」, 「原脈論」, 「病機論」 등의 논설은 「의학계원」 및 「진맥입식해」와 비교해 보면 사상과 논리가 매우 근접해 있어서 장원소가 아니면 결코 쓸 수 없는 글이라 생각한다.

## 2. 연구방향

「진맥입식해」는 장원소의立言 취지와 논리 구조에 입각하여 볼 때 전체 내용이 4장으로 구성됨을 볼 수 있다. 제1장 「旨趣」는 글 전체의 입언 취지를

제시한 말로서 장원소의 원문에 「旨趣」라는 표현이 보인다. 이어지는 제2장은 『난경』에서 『왕속화맥결』로 계승되는 진맥의 大義가 『내경』에서 비롯되는 天人相應 및 陰陽升降 패러다임에 기반한 것임이 주된 내용이므로 제목을 「脈理」로 붙였다. 이어지는 제3장은 『왕속화맥결』의 맥법이 정확하게 『난경』의 그것을 準用한 것으로서, 『난경』 맥법의 의의가 다양한 診法들을 총괄하여 表裏寒熱의 病源을 구명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음을 해명하였다. 때문에 이를 『난경』의 용례를 따라 「脈法」으로 명명하였다. 이어지는 제4장은 表裏寒熱의 변화가 결국 오장의 「虛實邪正之理」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밝힘으로써 진맥이 결국 病機를 찾는 과정이라는 뜻을 표명하였다. 때문에 「病機」로 명명하였다.

旨趣에 이은 大義, 脈法, 病機의 삼단계적 구성은 장원소의 창안이라기 보다 사실 上古의 三極의 세계관에 그대로 따른 것이다. 『왕속화맥결』의 구성 역시 五臟脈法을 기술한 전반부와 七表八裏九道脈法을 기술한 중반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診雜病生死候歌 이후 제 雜法을 기술한 삼단 구성의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17)</sup> 『찬도맥결』에 이어 『동의보감』을 저술한 허준 역시 天地人の 三才 원리를 준용하여 전서를 「內外雜」의 삼분류로 구성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 3. 해석규칙

구체적인 고찰의 진행에 앞서 다음과 같은 해석의 규칙들을 전제하였다.

첫째, 장원소의 「진맥입식해」는 기본적으로 「진맥입식」에 대한 해설이므로 두 글을 합해 보아야 한다.

둘째, 장원소의 주석 및 글들을 근거로 「진맥입식해」의 내용을 해석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진맥입식」의 가결에 포함된 장원소의 주석들 나아가 『왕속화맥결』 歌訣 전체에 대한 장원소의 주석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외 장원소의 글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을 근거로 삼을 수 있다.

17) 김공빈 편역, 허준 저. 찬도방론맥결집성. 서울. 현동학당 출판국. 2005. pp.2-3.

13) 이 3책은 현재 일본 소재 원본의 영인판이 중국에서 출시되었다.(馬繼興 등 편집. 日本現存中國稀觀古醫籍叢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9.)

14) 조선 내의원 및 허준과 관계된 『왕속화맥결』 관련 서적들에 대해서는 한의학연구원의 『찬도방론맥결집성』 해제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안상우. 찬도방론맥결집성.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4. pp.27-33.)

15) 鄭金生 主編. 海外回歸 中醫善本古籍叢書(1)-潔古老人注王叔和脈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p.321.

16) 『保命集』의 저자에 대한 논쟁을 검토한 趙는 張元素와 劉完素 두 의가의 의학사상을 모두 익힌 다른 인물이 양자를 종합하여 저술하였을 것이라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조대진. 素問病機氣宜保命集의 저자에 관한 고찰. 대한원전지사학회지. 1998. 11(2). pp.171-202.)

셋째, 세부적인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상위의 논리와 상응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즉 세부 논리는 전체 취지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반대로 전체 취지는 세부 논리에 입각하지 않고 해명될 수 없다. 따라서 세부적인 논리들의 상호 연결과 전체적인 취지와 상응 대응 관계를 확보해 나가는 것을 해석의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아래는 「진맥입식해」를 章句로 나누고 해당 「진맥입식」의 가결을 分屬한 것으로, 이 연구의 직접적인 연구 대상이다. 현재 국내에서 간행된 『찬도맥결』제 판본은 영인본을 그대로 수록하여 구두점이 없다. 人民衛生出版社 간행 『결고주맥결』에는 구두점이 있지만, 이 연구는 내용 고찰에 근거하여 새롭게 구두하고 章節을 나누었다. 「진맥입식해」 원문 아래에 「진맥입식」 가결의 해당 부분을 併記하여 함께 보도록 하였다. 이러한 분속은 연구의 필요에 따른 임의적인 것이지만 대체로 들어맞음을 볼 수 있다. 아울러 본고의 모든 번역은 본고에서 진행한 고찰 결과를 기준으로 한 독자적인 것임을 밝힌다.

#### 4. 「진맥입식해」 원문 章句와 句讀

〈診脈入式解〉

##### 1. 旨趣

- ① 【潔古曰(性張名元素金人)】  
② 且夫入式 得之於心 應之於手 行之於用 得旨趣者少

##### 2. 大義

- ③ 故先生言 入式總包五臟及諸脈法 婦人小兒  
④ 察色觀脈 左陽升而不升 謂之不及 右陰降而不降 謂之太過  
⑤ 體本陰陽 假言男女 故爲同斷之說 命門與腎 水火之別 故言審趨

左心小腸肝膽腎 右肺大腸脾胃命  
女人反此背看之 尺脈第三同斷病  
心與小腸居左寸 肝膽同歸左關定  
腎居尺脈亦如之 用意調和審安靖  
肺與大腸居右寸 脾胃脈從關裏認  
命門還與腎脈同 用心子細須尋趣  
若診他脈覆手取 要自看時仰手認

三部須教指下明 九候了然心裏認  
大腸共肺爲傳送 心與小腸爲受盛  
脾胃相通五穀消 膀胱腎合爲津慶  
三焦無狀空有名 寄在胸中膈相應  
肝膽同爲津液府 能通眼目爲清淨  
智者能調五藏和 自然察認諸家病

##### 3. 脈法

- ⑥ 以此推排具五難輕重之說 關前關後三難說之詳矣  
⑦ 至數多少十四難以稱之 脈之形象十五難具載之

掌後高骨號爲關 骨下關脈形宛然  
以此推排名尺澤 三部還須子細看  
關前爲陽名寸口 關後爲陰直下取  
陽弦頭痛定無疑 陰弦腹痛何方走  
陽數卽吐兼頭痛 陰微則瀉膈中吼  
陽實應知面赤風 陰微盜汗勞兼有  
陽實大滑應舌強 陰數脾熱開口臭  
陽微浮弱定心寒 陰滑食注脾家咎  
關前關後辨陰陽 察病根源應不朽  
一息四至號平和 更加一至大無病  
三遲四敗冷危困 六數七極熱生多  
八脫九死十歸墓 十一十二絕魂瘥  
三至爲遲一二敗 兩息一至死非怪  
(遲冷數熱古今傳 難經越度分明載  
熱卽生風冷生氣 用心指下丁寧記)  
春弦夏洪秋似毛 冬石依經分節氣  
阿阿緩若春楊柳 此是脾家居四季  
在意專心察細微 靈機曉解通玄記

##### 4. 病機

- ⑧ 遲冷數熱 乃臟腑汗下 血營氣衛不失天度爲常  
過則生七表 不及則生八裏 皆從血氣內外 以察  
乎虛實邪正之理  
⑨ 假令熱生風 冷生氣 熱生風而制火 冷生氣而制  
水 以此舉金木爲例 餘倣此  
⑩ 木主風而金主氣 火化熱而水化寒  
遲冷數熱古今傳 難經越度分明載  
熱卽生風冷生氣 用心指下丁寧記  
(春弦夏洪秋似毛 冬石依經分節氣

阿阿緩若春楊柳 此是脾家居四季  
 在意專心察細微 靈機曉解通玄記)  
 浮乳滑實弦緊洪 七表還應是本宗  
 微沈緩瀉遲并伏 濡弱相兼入裏同  
 血營氣衛定息數 一萬三千五百通<sup>18)</sup>

⑩ 故解入式<sup>19)</sup>

### Ⅲ. 본론

#### 1. 旨趣

〈診脈入式解〉

① 【潔古曰(性張名元素金人)】

② 且夫入式 得之於心 應之於手 行之於用 得旨趣者少

##### 1.1 〈診脈入式解〉

“診脈入式解”란 題名은 원래 『찬도맥결』에는 없으나 필자가 붙여 넣었다. 『찬도맥결』에서는 『왕숙화맥결』의 원제인 ‘診脈入式’을 그대로 표제로 쓰고 아래 “潔古曰”이란 標識를 써 넣음으로써 「진맥입식」의 가결과 구별되게 하였다. 결고맥결에는 “潔古老人入式論”이란 제명이 붙어 있다. 이를 따를 수도 있으나 원작자가 직접 “解入式”이라 밝힌 것을 따라 “診脈入式解”를 제명으로 삼았다.

‘入式’은 『難經集注』에 “診候之法式”이라 풀이한 것이 보인다.<sup>20)</sup> ‘入式’이란 제목이 붙은 책으로는宋代 劉溫舒 撰의 『素問入式運氣論奧』가 유명하다. 日本 醫家 岡本爲竹의 「素問入式運氣論奧序」의 주석에 보면 “‘入式’의 ‘入’은 ‘入學’의 뜻이고 ‘式’은 ‘格式’의 의미이니 入式이란 말은 素問 五運六氣學에 進入함에 그 格式을 알게 한다는 뜻이다.”<sup>21)</sup>라고 하

었다. 장원소의 『臟腑標本寒熱用藥式』에 보이는 ‘用藥式’이란 용어 역시 用藥의 法式이란 뜻으로 볼 수 있으며, 왕호고가 전하는 『湯液本草』에도 ‘藥類法象’, ‘用藥凡例’ 등의 표현이 보이니 모두 用藥의 法式을 추구하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장원소는 『왕숙화맥결』 주석에 다량의 처방을 제시함으로써 진맥과 用藥의 일치 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진맥과 치료를 결합하려면 통합적인 수준의 이론 모델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보면 入式이 지니는 이론 모델로서의 의미를 엿볼 수 있겠다.

##### 1.2 ① 【潔古曰(性張名元素金人)】

“潔古曰”은 『찬도맥결』에서 인용을 標識하는 言詞에 해당한다. “性張名元素金人”은 허준의 주석이다. 발문에 따르면 허준은 『찬도맥결』 舊本の 교정 과정에서 『찬도맥결』 관련 제 판본에 의거하여 전문의 10~20% 가량을 교정하였는데 교정 내용 가운데 첫째로 언급한 것이 “姓名難辨者, 著註以明之”이며, 여기 이 “性張名元素金人”이 그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sup>22)</sup> 鄭金生은 예의 『결고주맥결』 「校後記」에서 『결고주맥결』의 주석 가운데 인용 표지가 없는 주석들에 대하여, 『찬도맥결』에서 대부분 “潔古曰”로 표지를 붙여 놓았는데 그 근거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sup>23)</sup> 허준 발문에 따르면 “謹據諸本”이라 하였으니 허준의 功業에 의하여 『찬도맥결』 내에 장원소의 의학이 확증, 보존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동의보감』에 보면 王好古 등 문인이 전한 他書에서 장원소 관련 지식을 가려 뽑아 “潔古”로 표지한 내용들이 상당 수 눈에 띈다. 결과적으로 허준에 의하여 장원소의 의학의 상당 부분이 수집, 보존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허준의 의학에서 장원소의 의학이 차지하는 위상 나아가 『왕숙화맥결』 의학이 『동의보감』 의학에서 차지하는 지위

18) 김공빈 편역, 허준 저. 찬도방론맥결집성. 서울, 현동학당 출판국. 2005. pp.12-106.

「진맥입식」歌訣은 卷之一에 분산되어 있어 「진맥입식해」와 대조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편의를 위해 함께 제시하였다.

19) 김공빈 편역, 허준 저. 찬도방론맥결집성. 서울, 현동학당 출판국. 2005. p.12.

20) 柳長華 主編, 王九思 等 輯. 難經集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14. p.8. “斯乃脈位之綱維, 診候之法式也.”

21) 윤창열. 素問入式運氣論奧.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68.

22) 김공빈 편역, 허준 저. 찬도방론맥결집성. 서울, 현동학당 출판국. 2005. p.568. “臣性本庸愚, 學未款啓聞, 命抵棟夙夜靡皇, 謹據諸本, 正其一二, 姓名難辨者, 著註以明之, 詞意有紊者, 爲圈以斷之, 湯丸之名, 以陰易陽, 豕亥之訛, 改贗爲眞, 總若干處, 皆付標以進.”

23) 鄭金生 主編. 海外回歸 中醫善本古籍叢書(1)-潔古老人注 王叔和脈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pp.320-321.

를 반증한다고 하겠다.

### 1.3 ② 且夫入式 得之於心 應之於手 行之於用 得旨趣者少

이는 장원소가 문인들에게 평소 가르친 진맥 학습의 핵심적인 요지, 즉 장원소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旨趣’ 바로 그것이다. ‘지취를 터득한 사람이 드물다(得旨趣者少)’는 말은 體狀과 主病으로 대표되는 바 脈象과 病證이 분절되고 지식과 기술이 해리된 피상적 지식으로는 진맥의 원리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도 어렵고 임상에서의 실제적인 활용도 불가능하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得之於心’은 「진맥입식」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그 전체적인 입론 취지에 기반한 패러다임 수준에서의 깊이있는 이해를 기반으로 포함된 각종 진맥의 원리, 원칙들을 융해, 결합해 나가는 학습 방법이 요구된다는 의미이다. 때문에 장원소는 운기론적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난경』 및 『왕속화맥결』의 제반 맥법과, 仲景 및 諸家の 用藥을 그물처럼 연결하여 변증논리체계 수준에서 진맥의 의의를 입론하는 총체적인 논리를 구성하게 되었다. ‘應之於手’는 말 그대로 보면 손 끝에 환자의 病機가 자연히 감응됨을 말한다. 그 실천적인 뜻을 헤아려 보면, 의사의 마음에서 指下에 잡히는 맥상과 觀形察色에 의한 病機 파악이 일치하여야 함을 강조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환자의 병기와 일치하는 맥상이 손 끝에 잡힐 때 또는 맥상과 합치되는 병증이 耳目으로 들어올 때 그 순간에 바로 의사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오는 感應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行之於用’은 변증의 결과를 임상에서 용약을 통하여 險證해야 한다는 뜻이다. 용약을 통하여 변증 결과의 타당성이 치료 효과에 의해 입증된 경우 의사는 ‘지취를 터득하는 단계(得旨趣)’에 이르게 된다. 이때 학습자는 마음 깊숙이 처방(行之於用)을 가닥으로 안의 병리(得之於心)와 밖의 맥상(應之於手)이 확고하게 결합하여 새겨지는 과정을 체험하게 된다. 『왕속화맥결』은 병기를 도출하는 지점에서 그쳤으나, 장원소는 특히 용약에 의한 협증의 과정을 중요시하여 七表八裏脈의 해당 부분에 구체적인 처방들을 용약의 준거를 마련

하였다. 『결고주맥결』의 목차에 보면 小柴胡湯을 필두로 八物湯에 이르기까지 七表脈 27首, 八裏脈 17首, 九道脈 4首의 총 48수 方名이 기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sup>24)</sup> 이들 가운데 상당 수가 특히 『동의보감』을 통하여 오늘에도 전하고 있다. ‘得旨趣’는 공부의 효험을 표명한 말이다. 장원소는 문인들에게 이상 일련의 학습 단계를 거침으로써 맥진 학습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원리에서 실상으로 조금씩 눈을 떠가다가 마침내 환하게 밝아지는 체험에 이를 수 있음을 알려 줌으로써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진맥입식」에서 말하는 ‘마음 깊숙이 새겨짐(心裏印)’도 정확한 진맥 공부를 통해 축적된 功力이 진맥 수행과 경험 확충의 기반임을 피력한 것이다. 「진맥입식」 530자 가결에서 “九候了然心裏認” 외에도 “用心子細須尋趣”, “用心指下丁寧記”, “在意專心察細微”라고 하여 거듭 心得을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다.

허준이 『찬도맥결』 발문에서 진맥 학습의 필요성과 진맥의 효험에 대한 신뢰를 표명한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장원소의 「진맥입식해」의 내용과 수미상응함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醫家들이 진맥을 어려운 일로 여기니, 고래로 入神藥妙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드물다. 이는 진실로 脈道가 玄微하여 蘊奧를 밝히기 어려운 데에서 말미암는다. 만약 능히 정미로운 사고로 묘리를 깨닫고 암묵적으로 마음에 통하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면 손 끝에 자득하고 마음으로 감응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세손가락의 아래 尺寸

24) 『결고주맥결』의 목차에 열거된 처방 목록은 다음과 같다. 칠표맥법 가운데 소시호탕, 지골피산, 조중탕, 칠성원, 가감차탕, 저령탕, 사황산, 서각지황탕, 저당원, 도인승기탕, 가감대시호탕, 대승기탕, 반하탕, 소시호가계탕, 부자사역탕, 광향반하산, 양격산, 출부탕, 황련사심탕, 소승기탕, 작약탕, 계지작약탕, 마황탕, 연교탕, 조중탕, 택사산(이상 27수), 팔리맥법 가운데 향궁탕, 당귀작약탕, 보폐산, 팔물탕, 옹황반화원, 굴피반하탕, 적출탕, 강활탕, 칠기탕, 계지가건강탕, 용골원, 길경탕, 오보원, 출부탕, 계지가부자탕, 오격관중산, 사백탕(이상 17수), 구도맥법 가운데 지골피산, 가감소시호탕, 인삼황기탕, 신침팔물탕(4수).(鄭金生 主編, 海外回歸 中醫善本古籍叢書(1)-潔古老人注王叔和脈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p.230.)

장중경의 처방 외에도 錢乙이나 『화제국방』 등의 처방이 골고루 섞여 있음을 볼 수 있다. 양격산, 팔물탕, 칠기탕, 인삼황기탕 등 『동의보감』에 수록되어 우리에게 익숙한 처방들이 많다.

의 안에 玄機가 반드시 드러나고 여러 妙理가 다 나타날 것인데 하필 上池의 물을 마시고 異人의 꿈에 의탁했다고 하여, 奇說을 지을 까닭이 있겠는가(25) (然而醫家以切脈爲難事, 自古及今, 鮮有入神臻妙者, 良由脈道玄微, 蘊奧難明耳, 苟能精思妙悟, 默識心通, 自得於手, 而應之於心, 則三指之下, 尺寸之中, 玄機必露, 衆妙俱呈, 何必飲上池之水, 託異人之夢, 而爲奇哉. 26) )”

‘飲上池之水’의 주인공이 편작이라면, ‘託異人之夢’의 주인공은 『金史』에 전하는 바 鑿心開竅의 異夢을 꾸고 洞徹其術하여 入神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장원소임이 분명하다.

“張元素는 자가 潔古이니 易州 사람이다. 8세에 등자거에 입시하고 37세에 經義 進士에 입시하였으나 廟諱를 범하여 낙방하였다. 이에 속세를 떠나 의학을 공부하니 이름을 아는 자가 없었다. 밤에 꿈을 꾸니 어떤 사람이 큰 도끼와 긴 칼로 가슴을 뚫고 심장을 열어 여러 권 책을 그 안에 넣었다. 이 일이 있는 후로 그 학술이 통철한 경지에 이르렀다.(張元素, 字潔古, 易州人, 八歲試童子學, 三十七試經義進士, 凡廟諱下第, 乃去學醫, 無所知名, 夜夢有人用大釜長鑿, 鑿心開竅, 納書數卷於其中, 自是洞徹其述. 27) )”

장원소는 중국의학사상 드물게 진사과에 합격한 경력을 지닌 유학자인데, ‘鑿心開竅’의 이몽은 仙家の 秘傳을 암시한 표현으로 볼 수 있고, ‘納書數卷’은 覺悟 이후에 의서를 연구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洞徹其述’하다 하였으니 『金史』에 전하는 장원소란 인물이 상고 도통을 이어 儒佛仙三教合一을 지향하는 수행공부를 바탕으로 의술에 통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허준이 발문에서 말하는 “精思妙悟, 默識心通”은 장원소가 말하는 “得之於心”의 공부방법을 좀 더 상세히 풀어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동의보감』의 「虛心合道」, 「學道無早晚」 등의 수행공부 관련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허준의 “自得於手, 而應之於心”은 장원소의 “應之於手”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허준이 공부의 효험으로 말한 “玄機必露, 衆妙俱呈”은 장원소의 “行之於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장원소가 학습 방법 측면에서 설명한 것을, 허준은 학습의 효용 측면에서 설명한 뜻으로 본다면 두 大家의 말이 桴鼓影響함을 볼 수 있다.

## 2. 大義

- ③ 故先生言 入式總包五臟及諸脈法 婦人小兒
- ④ 察色觀脈 左陽升而不升 謂之不及 右陰降而不降 謂之太過
- ⑤ 體本陰陽 假言男女 故爲同斷之說 命門與腎 水火之別 故言審趁

左心小腸肝膽腎 右肺大腸脾胃命  
女人反此背看之 尺脈第三同斷病  
心與小腸居左寸 肝膽同歸左關定  
腎居尺脈亦如之 用意調和審安靖  
肺與大腸居右寸 脾胃脈從關裏認  
命門還與腎脈同 用心子細須尋趁  
若診他脈覆手取 要自看時仰手認  
三部須教指下明 九候了然心裏認  
大腸共肺爲傳送 心與小腸爲受盛  
脾胃相通五穀消 膀胱腎合爲津慶  
三焦無狀空有名 寄在胸中膈相應  
肝膽同爲津液府 能通眼目爲清淨  
智者能調五藏和 自然察認諸家病

### 2.1 ③ 故先生言 入式總包五臟及諸脈法 婦人小兒

“先生言” 이전은 張璧이 선생 장원소의 입론 취지를 구술한 말이고, 이후는 장원소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진맥입식」의 大義를 해명한 것이다.<sup>28)</sup> 이와 같은 기술 형식 상의 안배를 통하여 구술자는 독자로 하여금 앞의 21글자의 입론 취지와 이하의 대의를 구별하여 볼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즉 이하 장

25) 본고의 모든 번역은 본고에서 진행한 고찰 결과를 기준으로 한 독자적인 것임을 밝힌다.

26) 김공민 편역, 허준 저. 찬도방론맥결집성. 서울, 현동학당 출판국. 2005. p.568.

27) 上海古籍出版社 上海書店 編. 二十五史(9)-金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p.301.

28) 鄭金生 主編. 海外回歸 中醫善本古籍叢書(1)-潔古老人注王叔和脈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p.233. “潔古老人張元素註, 雲岐子張璧述.”

원소가 설명하는 「진맥입식」의 대의는 앞서 언급한 학습 방법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전제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入式總包五臟及諸脈法 婦人小兒”은 「진맥입식」이 지니는 진단 상의 의의를 밝힌 것이다. 즉 장원소에 의하면 「진맥입식」은 단순히 맥진이라고 하는 변증론치의 일개 과정을 목표로 입론된 것이 아니며, 진맥을 중심으로 총괄적인 수준의 변증론치 원리를 제시할 목적으로 입론된 것이다. 때문에 「진맥입식」을 화타 類의 오장맥법이나 『상한론』의 맥법 등 一家의 맥법을 기준으로 해석하려 하면 안되고 반드시 그것이 기반하는 바 총괄적 원리를 바탕으로 해석해야 한다. 또한 「진맥입식」은 상한과 잡병은 물론 부인병과 소아병까지 각과를 아우르는 총괄적 변증론치 원리에 기반한 것이므로 특정 질병 중심으로 얻어진 脈證 경험을 기준으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 장원소는 이와 같이 해석의 대전제를 밝히는 지점에서 시작함으로써, 독자가 「진맥입식」을 이해함에 있어 自派의 특정한 입장이나 맥락에 근거하여 『왕숙화맥결』의 내용을 분리, 변형하여 이해하기 보다는 전체를 통관하는 총체적 패러다임을 충실히 이해하고 항상 이에 의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 2.2 ④ 察色觀脈 左陽升而不升 謂之不及 右陰降而不降 謂之太過

이 24글자는 앞에서 말한 「진맥입식」의 대법으로서 총괄적 변증론치 원리를 해명한 것이다.

“察色觀脈”은 진맥이 자체로 독립되고 완결된 진단 과정이 아니며 소위 望聞問切 四診과 반드시 결합되어 色脈合參, 脈證合參의 원칙에 따라 證과 脈을 兩方으로 대조함으로써 病機를 추구해나가는 역동적 과정임을 강조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진맥입식」의 논리에는 언제나 色脈合參, 脈證合參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장원소의 다음 주석에 상세한 뜻이 보인다.

“진맥하지 않고 능히 알 수 없으며 문진하지 않고 능히 알 수 없으니, 진맥과 문진을 합참하여 세밀한 것까지 상세히 묻고 진맥해야 한다. 병을 알

고자 한다면 먼저 진찰을 시행하되 사상을 온전히 행해야 한다. 신성공고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원용할 수 없으니 하공이 되어버린다.(不以診而能知, 不以問而能知, 合診而細詳. 欲爾識病, 先行診察, 全行四象, 神聖工巧, 缺一不圓, 爲下工矣.<sup>29)</sup>)”

神聖工巧 四象의 진단 원칙은 『내경』에서 유래하여 『난경』 61년에서 정립된 것으로서, 『찬도맥결』을 거쳐 『동의보감』에도 진단의 대원칙으로 제시되고 있다.

“左陽升而不升 謂之不及 右陰降而不降 謂之太過”의 20자는 『왕숙화맥결』의 칠표팔리맥법이 지니는 변증론치 원리로서의 의미를 해명한 것이다. 『결고주맥결』의 ‘地支不移循環之圖’에 대한 주석에서 그 설명을 찾아볼 수 있다.

“왕씨는 먼저 좌우수를 육위로 나누어 육부를 분속하였으니 (육위는) 내로 십이경맥에 응한다. 언컨대, 좌우는 開闔을 담당하는 도로이니 이로써 汗下의 治法을 밝혔다. 때문에左는 表이고 陽이며 右는 裏이고 陰이라 말한다. 經에 이르기를 陽은 氣를 化한다고 하였으니 汗이 可하고 陰은 形을 이룬다고 하였으니 下가 可하다.(王氏先立六位於左右手者, 分列六部, 內應十二經也. 言左右者, 乃司開闔之道, 以明汗下之法. 故曰左爲表, 陽也, 右爲裏, 陰也. 經曰 陽化氣, 可汗, 陰成形, 可下.<sup>30)</sup>)”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장벽의 주석에서 볼 수 있다.

“무릇 이상 6위의 맥은 모두 천도를 따라 우행한다. 이로써 말해보면 병이 좌맥에 있으면 주로 表病이니 汗이 적당하고, 병이 우맥에 있으면 주로 裏病이니 下가 적당하다. 좌맥은 氣를 나타내므로 대부분 정허이고 무형의 사기이므로 汗이 맞다. 좌는 음(혈)을 나타내므로 대부분 사실이고 유형의 사기이므로 下가 맞다. 그 전변의 도는 좌는 반드시 우로 전하니 한증이 전하면 하증이 되지만 하증이 한증으로 전하는 이치는 없다. 좌수가 상열하한하고 우수가 상조하열한 경우는 좌관과 우관에서 한하의 도를 밝힌다. 만일 여러 기가 섞이고 경맥

29) 김공빈 편역, 허준 저. 찬도방론맥결집성. 서울. 현동학당 출판국. 2005. p.488. ‘察色觀病人生死候’의 주석.

30) 鄭金生 主編. 海外回歸 中醫善本古籍叢書(1)-潔古老人注 王叔和脈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p.228.

이 얽힌 경우는 주객과 사정을 소식해야 하니 각기 소관 병증을 칠표팔리맥의 해당 부에서 논구하기로 한다.(凡此六位之脈, 皆循天而右行。以此言之, 病在左主表, 宜發汗, 病在右主裏, 宜下。左爲氣多虛, 是無形故宜汗, 左爲陰多實, 乃有形故宜下。其傳變之道, 左必傳右, 乃汗證傳作下證, 下證無傳汗證之理。左上熱而下寒, 右上燥而下熱, 左關右關, 以明汗下之道。如漚互交經, 客主邪正相合, 消息各所管證, 隨部脈論之。31) ”

이상의 설명을 통하여 『왕숙화맥결』 七表八裏脈法이 지니는 의의가 氣血, 表裏, 汗下 및 上熱下寒, 傳變, 등의 총체적인 변증론치 개념을 아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진맥입식」의 첫 가결인 “左心小腸肝膽腎右肺大腸脾胃命”에 대한 장원소의 주석이다. 여기서 장원소는 ‘脈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수준의 질문에서부터 진맥의 원리를 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치법의 대원칙을 도출하는 것으로 마침으로써 진맥이 변증론치 전체 과정에서 지니는 대의를 해명하고 있다.

“속화의 말은 (맥이) 天度를 따라 육십갑자를 주수(主髓)한다는 것이다. 일월오성이 모두 서에서 동으로 우전하니 맥 또한 그러하다. 때문에 심, 간, 신의 역행 순서로 말하였다. 인신의 좌수 촌구는 북극성에 응하니 그 시령은 濶이다. 따라서 군화는 焔을 시행하지 않으니 이는 곧 군왕의 덕이다. 밖으로 3월에 응하고 안으로 좌촌에 응한다. 좌촌은 심과 소장의 동맥이 나오는 곳이다. 심에서 역행하여 간으로 가니 그 시령은 風이다. 외로는 寅월(1월)에 응하고 내로는 좌관에 응한다. 좌관은 간과 담의 동맥이 나오는 곳이다. 간에서 역행하여 신으로 가니 외로는 11월에 응하고 내로는 좌척에 응한다. 좌척은 신과 방광의 동맥이 나오는 곳이다. 뜨면 소장맥이 되고 가라앉으면 심의 맥이다. …우촌은 폐이니 외로 9월에 응하고 내로 우촌에 응한다. 그 시령은 조이니 폐와 대장의 맥이 나오는 곳이다. 역행하여 비로 가니 외로 7월에 응하고 내로 우관에 응한다. 그 시령은 습이니 비와 위의 맥동이 나오는 곳이다. 역행하여 수궐음삼초로 가

니 그 시령은 서이다. 외로는 5월에 응하고 내로는 우척에 응하니 명문과 삼초 맥동이 나오는 곳이다. …이상은 속화가 맥이 온풍한조습서의 순으로 좌행을 말한 것이다. 언컨대, 천기는 육십갑자를 역행하여 십이진을 순행하지 않는다. 십이진을 순행하는 것은 온열습조한풍이니, 천도가 좌선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경에) 이르기를 천도의 좌행을 기준으로 종전래자를 실사라 하고 종후래자를 허사라 하였다.(叔和言巡天度主隨六甲。日月五星, 皆自西而東轉, 其脈亦然, 故心肝腎, 逆而言之。人左寸應辰, 其時溫, 故君火不行炎令, 此乃君之德也, 外應三月, 內應左寸, 心與小腸動脈所出。從心逆行於肝, 其令風, 外應於寅, 內應左關, 肝與膽動脈所出。從肝逆行於腎, 外應十一月, 內應於左尺, 腎餘膀胱動脈所出。浮爲小腸, 沈爲心。…已上叔和言脈左行, 溫風寒燥濕暑。言天者亦遊六甲, 非順行十二辰, 順行十二辰者, 溫熱濕燥寒風, 却非天之左轉。所以云 天行從前來者爲實邪, 從後來者爲虛邪。32) ”

첫머리의 ‘主隨’는 主客이라는 말과 같으니, ‘叔和言巡天度主隨六甲’는 「진맥입식」의 진찰 원리가 당시 유행한 운기론의 主客相合 논리에 기반한 것임을 표명한 것이다. 장원소는 글의 앞부분에서 ‘日月五星, 皆自西而東轉, 其脈亦然 故心肝腎, 逆而言之.’ 이라 하여, 맥이 일월오성과 마찬가지로 자서동전의 右行<sup>33)</sup>을 하는 이치에 근거하여 왕숙화가 心肝腎脾命의 오행 역순으로 육부 분위를 설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글을 마무리하는 말미에서는 돌연 “已上叔和言脈左行, 溫風寒燥濕暑”이라하여 앞에서 우행이라 말한 것과 반대로 좌행을 말하였으니 앞뒤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에 바로 맥의 奧義가 깃들어 있음을 볼 수 있다. 溫風寒燥濕暑의 순서는 앞서 긴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한 少陰心-溫, 厥陰肝-風, 太陽膀胱-寒, 陽明大腸-燥, 太陰脾-濕, 少陽三焦-相火의 순서를 말한 것으로서, 이는 暑(相火)의 위치가 바뀐 것을 제외하면 客氣

31) 김공빈 편역, 허준 저. 찬도방론맥결집성. 서울. 현동학당 출판국. 2005. p.20.

32) 김공빈 편역, 허준 저. 찬도방론맥결집성. 서울. 현동학당 출판국. 2005. pp.17-18.

33) 右行 또는 右轉은 관찰자 남면 기준 반시계방향을 말한다.(김신형. 《황제내경》의 천문·역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p.24.)

(天氣)의 순서와 같다고 볼 수 있으니 ‘天之左轉’이라 말한 까닭이다.

主氣가 地氣의 소생이라면 客氣는 天氣의 소생이니 춘하추동의 생장수장은 주기의 작용에 의하고 객기가 주기의 위에 加습함으로써 변화가 발생한다는 운기론의 대의에 비추어보면,<sup>34)</sup> 장원소가 脈逆行과 脈左行으로 말한 뜻을 짐작할 수 있다. 즉 맥역행의 地道右行이 오장 본위의 일정한 생장수장의 眞藏 원리를 뜻한다면, 脈左行의 天道左旋은 경락 기화에 의한 육기 변화가 오장의 오행 위에 더해짐으로써 태과불급의 변화가 야기됨을 뜻하는 것이다. 장원소는 風寒溫熱로 표상되는 인신 氣化의 외적 발현의 근원이 絃洪毛石으로 압축되는 오장의 眞藏에 바탕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맥의 본질을 ‘天真造化之元氣’라 표현하고 있다.

“내경에 이르기를 春弦夏洪秋毛冬石이라 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맥이 天真造化의 元氣와 같음을 말한 것이다. (맥이) 춘하추동 목화금수의 위(좌우촌관척)를 따라 생장수장에 參和하여 상응하므로 천지의 음양이기를 받아 생생불식하여 진기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맥에서 사생을 증험한다. (經曰春弦 一曰長, 夏洪 一曰鉤, 秋毛 一曰澁, 冬石 一曰沈, 此言正脈同天真造化之元氣也. 巡於春夏秋冬木火金水之位, 生長收藏參和相應, 故稟二儀而生, 不離於氣, 故脈有死生之驗.<sup>35)</sup>)”

맥의 이러한 奧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保命集』의 「原脈論」에 보인다.

“맥이란 무슨 물건인가? 맥에는 세 가지 이름이 있다. 첫째 命의 본이고, 둘째 氣의 신이며, 셋째 몸의 道이다. 중략. 『내경』의 이른바 天和가 이것이다. 팔 하나가 끊어지거나 눈 둘이 멀어도 생명을 해치지 않지만 맥은 잠시도 떨어질 수 없으니 떨어지면 명이 끊어진다. 『내경』에 이르기를 春弦(혹은 長) 夏洪(혹은 鉤) 秋毛(혹은 澁) 冬石(혹은 沈)이라 하였으니 이는 실로 맥이 天真造化의 元氣와 하나임을 말한 것이다. (맥이) 춘하추동 목화금수의 위(좌우촌관척)를 따라 생장수장에 참화

하여 상응하므로 건곤 이의를 받아 생생불식하여 天氣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맥에서 사생을 증험한다. (夫脈者, 果何物也. 脈者, 有三名, 一曰命之本, 二曰氣之神, 三曰形之道, …經所謂天和者是也. 至於折一支, 瞽二目, 亦不爲害生, 而脈不可須臾失, 失則絕命害生矣. 經曰春弦 一曰長, 夏洪 一曰鉤, 秋毛 一曰澁, 冬石 一曰沈, 此言正脈同天真造化之元氣也. 巡於春夏秋冬木火金水之位, 生長收藏參和相應, 故稟二儀而生, 不離於氣, 故脈有死生之驗.)<sup>36)</sup>”

天真造化之氣로서의 맥은 陰陽渾然의 一氣로서 음양이 미분한 상태의 원기요 진기인 맥의 심층을 이루어 혈기의 승강을 고동한다면, 맥의 표층은 혈기로 분화하여 영위의 내외 순환으로 구체화하여 출입에 해당한다. 이상과 같이 맥에는 내외 오장의 음양승강이 주가 되어 體를 定한다면 외로 경락의 氣血內外가 客이 되어 用을 운영하는 陰陽氣血의 主客相合의 이치가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에 글의 서두에서 “叔和言巡天度主隨六甲”라고 하여 맥이 운기 주객상합의 원리에 기초함을 표명하였던 것이다. 장원소가 발명한 맥의 이와 같은 奧義에 대하여 허준은 발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대개 맥은 天真委和之氣로 생생불식의 妙理가 담겨 있다. 精血이 영기를 시작으로 선천의 일기가 混沌의 중심에 달라붙어 미세한 고동을 시작하다가, 脫胎한 후에는 (천진위화지기가) 穀神과 胃氣와 參合하여 (맥의 안을) 채운다. 이에 음양 승강의 理와 혈기 동정의 機가 다 (내외로) 갖추어지게 된다. 때문에 사람이 팔 하나가 없고 눈 하나가 없어도 생명에 해가되지 않지만 맥은 잠시도 떠날 수 없으니 맥이 몸에 대하여 어찌 그 뜻이 크지 않은가 매일 살피지 않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 (蓋脈者, 天真委和之氣, 有生生不息之妙, 爰自精血乍凝, 先天一氣, 已寓於渾沌之中, 蠢然能動, 及其脫胎之後, 穀神胃氣參合而充, 於是陰陽升降之理, 血氣動靜之機, 悉具焉. 故人折一脂瞽一目, 不能害生, 而脈不可須臾失, 則脈之於身, 豈不大矣, 而日不可不察也明矣.<sup>37)</sup>)”

34) 윤창열. 素問入式運氣論奧.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92.

35) 宋乃光 主編, 劉完素醫學全書-素問病機氣宜保命集·原脈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15.

36) 宋乃光 主編, 劉完素醫學全書-素問病機氣宜保命集·原脈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15.

37) 김공빈 편역, 허준 저. 찬도방론맥결집성. 서울. 현동학당

허준이 말하는 “人折一脂瞽一目，不能害生，而脈不可須臾失”은 『保命集』의 「原脈論」의 비유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sup>38)</sup> 허준은 발문에서 장원소의 天真造化之氣를 ‘天真委和之氣’로 표현하였는데 이 표현은 원래 劉開의 『脈訣理玄秘要』 「脈旨綱領」에서 유래한 것으로,<sup>39)</sup> 장원소가 말하는 “天真造化之元氣”를 달리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허준이 말하는 “陰陽升降之理，血氣動靜之機”의 理와 氣가 바로 장원소가 말하는 ‘天和’이고 ‘天真造化之元氣’와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천진조화지기로서의 맥이 음양의 승강과 혈기의 동정의 動因인 것이다.

### 2.3 ⑤ 體本陰陽 假言男女 故爲同斷之說 命門與腎 水火之別 故言審越

장원소가 말하는 “體本陰陽 假言男女”의 뜻을 고찰하기에 앞서, 먼저 이상 장원소의 육위에 해석을 18년의 해석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 과정을 통하여 장원소의 입문 배경을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역사적으로 논란이 분분한 『왕숙화맥결』의 ‘女人拜看’, ‘左腎右命’<sup>40)</sup> 등에 대한 장원소의 입장을 좀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난경』 18난은 寸關尺 六部 분진의 의미를 스스로 제시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오행의 상생 논리와 上中下 三部의 논리를 종합하여 육부 분위의 뜻을 설명하고 있다.<sup>41)</sup> 그런데 18난의 논리를 그대로 좇

다 보면 두 가지 난점에 직면하게 된다. 첫째 18난에 따르면 육부 분위는 오장 기준이 되어 경락의 外氣化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어렵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상한론』을 중심으로 발달한 진맥 논리와 연계가 곤란해져 『왕숙화맥결』은 『상한론』과는 무관한 것이 되고 만다. 필자는 바로 이러한 『왕숙화맥결』의 맥법은 『상한론』의 그것과 상충한다는 인식이 『왕숙화맥결』에 대한 역사적 거부감의 근원일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18난에 보이는 六位와 신형 上中下 三部와의 관계를 오장과의 관계에 비해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면 「진맥입식」에서 대장이나 소장 을 그대로 上部에 배속시킨 방식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된다. 필자는 역사적으로 『왕숙화맥결』에서 말하는 ‘女人拜看’ ‘左腎右命’의 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까닭이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假言男女”에 대한 장원소의 해석은 진맥 大義라고 하는 통합적 수준의 변증론치 패러다임에 근거함으로써 지엽적인 문제들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개진됨을 볼 수 있다.

#### 體本陰陽 假言男女 故爲同斷之說

“體本陰陽”이란 升降의 주체가 음양임을 뜻하는 말이니 구체적으로 말하면 ‘左陽右陰降’이 이에 해당한다. “假言男女”는 인신 기화 즉 升降出入에 있어, 음양의 승강이 주체라면 기혈의 출입은 객체가 된다는 의미이다. 기혈은 血營氣衛의 형식으로 天度인 五臟神氣를 따라 血氣內外의 출입 과정을 통하여 인신기화를 완성한다. 때문에 기혈은 음양에 대하면 객으로 말할 수 있다. 다음은 「진맥입식」가 곁에 대한 장원소의 주석이다.

“「진맥입식」의 ‘女人反此背看之’는 남녀의 차이를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四時의 차이를 이룬 것이다. 춘하에 寸關尺盛한 경우를 19난에서 男得女脈이라 해석하고 不足이요 病在內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素問』에 이르기를 ‘濁陰歸六府’라고 하였으니, 春夏가 男子라면 太陽陽明少陽의 三陽 또한 男子이다. 寸關尺盛은 모두 男得女脈에 해

출판국. 2005. p.568.

38) 『동의보감』 맥문에서도 『의학입문』을 인용하여 “脈者，先天一氣 … 折一臂瞽一目而不夭，脈少有變，則病患隨之，可不慎哉”라고 하였으니 장원소가 말하는 천진조화지기로서의 맥의 뜻을 이천도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진주표 주석, 허준 저. 대역 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2012. p.816.)

39) 鄭金生 主編. 海外回歸 中醫善本古籍叢書(1)-脈訣理玄秘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p.131.

40) 김진호. 左腎右命門과 腎間動氣의 통합적 이해를 위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원전학회지. 2013. 29(4). pp.253-266.

41) 柳長華 主編. 王九思 等 輯. 難經集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14. pp.52-54. “十八難曰，脈有三部，部有四經，手有太陰陽明，足有太陽少陰，爲上下部，何謂也。然，手太陰陽明，金也，足少陰太陽，水也，金生水，水流下行而不能上，故在下部也。足厥陰少陽，木也，生手太陽少陰火，火炎上行而不能下，故爲上部。手心主少陽火，生足太陰陽明土，土居中宮，故在中部也。此皆五行子母更相生養者也。脈有三部九候，各何主之。然，三部者，寸關尺也。九候者，浮

中沈也。上部法天，主胸以上至頭之有疾也，中部法人，主膈以下至臍之有疾也，下部法地，主臍以下至足之有疾也。審而刺之者也。”

당하니 不足으로 해석된다. (추동에) 寸盛尺弱은 女得男脈이니 太過로서 病在四肢로 해석된다. 『소문』에 이르기를 ‘淸陽實四肢’ 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太陰少陰厥陰의 三陰 또한 女子이다. (장중경의) 三陰病은 모두 寸盛尺弱하니 이 또한 ‘女人反此’ 의 경우에 해당한다. 『소문·열론』에 이르기를 三日以前은 汗法이 타당하고 三日以後는 下法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니 春夏秋冬 四時가 同例이다.

‘尺脈同斷病’ 이라 한 것은 (명문이) 男子藏精하고 女人藏血하여 주객의 차이가 있지만 자연히 받는 병은 같기 때문이다. (非言男女, 正謂四時. 春夏寸弱而尺盛, 謂男得女脈, 謂不足病在內. 素問曰: 濁陰歸六府. 春夏爲男, 太陽陽明少陽, 三陽亦爲男, 寸弱而尺盛, 皆爲男得女脈, 謂不足也. 秋冬爲女, 寸盛而尺弱, 爲女得男脈, 謂太過病在四肢. 素問曰, 淸陽實四肢. 太陰少陰厥陰, 三陰亦爲女, 三陰皆寸盛而尺弱, 亦爲反此. 素問熱論云, 三日以前當汗, 三日以後當下, 春夏秋冬四時同. 尺脈同斷病者, 男子藏精, 女人藏血, 隨主自異, 所受者同也. 42) ”

일반적으로 「진맥입식」의 가결 ‘女人反此背看之’ 는 『난경』 19난과 연계하여 男女의 맥의 차이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간주되는데, 장원소는 설명은 그와 다르다. 43) 장원소의 설명은 앞서 설명한 體本陰陽의 주객 논리를 기준으로 보아야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즉 ‘左心小腸肝膽腎右肺大腸脾胃命’은 左陽升右陰降의 기준이 됨을 말한 것이고, 기혈의 내외 출입이 상반되는 역전의 상황에서는 반대의 논리로 病機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원소의 설명을 따라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칠표팔리맥법은 左陽升右陰降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春夏라면 陽升하여 寸盛尺弱이 기준이 되고 秋冬이라면 陰降하여 尺盛寸弱이 기준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과 반대가 되는 경우 즉 春夏에 寸弱尺盛한 경우 秋冬에 尺弱寸盛한 경우는 기준과 반대가 되므로 치법도 각각 汗과 下가 아닌 下와 汗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자면, 장중경의 三陽病은 寸盛尺弱한 것이 常이

지만 이와 반대로 寸弱尺盛한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경우는 陽不及이 아닌 陰太過이므로 下해야 하며 44) 張仲景의 三陰病은 尺盛寸弱한 것이 상이지만 이와 반대로 寸盛尺弱한 경우는 陰太過가 아닌 陽不及이므로 汗할 수 있다. 45)

다음 장벽의 질문에 대한 장원소의 답변을 보면 배간의 뜻은 단순히 汗下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칠표맥은 비록 양맥이라 정의하였는데 열약을 쓰는 경우가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장원소가) 답하여 이르기를 陽中有陰이기 때문이다. 상중하 21道の 脈證用藥法을 통털어 칠표의 병이 상부나 하부에 있으면 상부나 하부를 치료하고, 중부에 있으면 중부를 화해한다. 그 맥증을 변별하여 그 주객을 판단하고 중경의 약을 쓰면 반드시 효험을 본다. 또 말씀하시기를 칠표맥은 춘하에 이를 얻으면 順이고 추동에 이를 얻으면 逆이라 하였다. (凡此七表, 雖名陽脈, 有用熱藥者何. 答云 陽中有陰故也. 通上中下二十一道脈證, 用藥法者, 七表之病, 在於上下, 謂之上下, 在中者, 和之於中. 辨其脈證, 知其主客, 用仲景之藥, 無不效也. 又曰 七表脈, 春夏得之爲順, 秋冬得之爲逆. 46) ”

이상의 설명을 통하여 장원소가 말하는 背看의 구체적 방법이 주객론이며, 이러한 논리는 결과적으로 장중경이 입론한 삼음삼양 치법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의 성격을 지님도 볼 수 있다. 장원소는 이러한

44) 실제로 칠표맥에서 左尺脈이 實하고 복창소변불금한 경우 (尺脈如繩應指來 腹脹小便應不禁)에 대하여 “主脈沈, 客脈實, 沈實相合, 沈勝實, 則是水勝火也, 乃主勝客, 乾薑附子湯主之. 實勝沈, 則是火燥去水, 乃客勝也. 大承氣湯主之. 此二證俱小便不禁, 實在下焦. 一云 朮附湯主之, 亦主勝客也.” (김공빈 편역, 허준 저. 찬도방론맥결집성. 서울. 현동학당출판국. 2005. p.314.)라고 하여 主客이 상반되는 두 가지 상황이 모두 존재할 수 있으며, 客勝한 경우는 대승기탕으로 下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主客의 허실을 左尺과 右尺에서 대비한 방법은 수화를 변별한 의미이다.

45) 예컨대 팔리맥에서 右寸脈이 緩하고 搖項筋한 경우 (緩脈關前搖項筋) “主脈溢, 客脈緩, 溢緩相合, 風邪傷衛, 項筋緊急, 可用桂枝湯, 不已, 葛根湯主之. 或羌活湯, 緩在上焦.” (김공빈 편역, 허준 저. 찬도방론맥결집성. 서울. 현동학당출판국. 2005. p.359.)라고 하여 羌活湯으로 汗할 수 있음을 말하였다.

46) 김공빈 편역, 허준 저. 찬도방론맥결집성. 서울. 현동학당출판국. 2005. p.335.

42) 김공빈 편역, 허준 저. 찬도방론맥결집성. 서울. 현동학당출판국. 2005. p.28.

43) 은의 연구에서 男女異脈說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은석민. 命門脈의 男右女左 개념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5. 28(1). pp.1-19.)

상대적 해석 논리가 다만 논리적으로 유추된 것이 아니라 인신 기화 상에서 비롯되는 필연적인 결과로서 『난경』의 좌신우명문설 및 그에 의거한 「진맥입식」의 同斷의 설은 정확하게 기혈과 그 근원인 수화의 차이라는 생리적 실체에서 기인하는 당연한 결론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때문에 ‘尺脈第三同斷病’을 주석하여 “男子藏精，女人藏血，隨主自異，所受者同也.”라고 하여 左右尺과 腎命門의 생리적 차이로 해석한 것이다. 좌우척을 同斷하여야 하는 까닭은 일차적으로 인신 생리에 있어 수화의 차이 즉 어떤 경우는 수가 주체가 되고 어떤 경우는 화가 주체가 되는 차이가 있기에 질병에 따른 기화 표현이 동일 하더라도 그 근본에서는 생리적 수화의 차이가 엄존하며 치법도 그를 반영하여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치가 있기 때문에 「진맥입식」가결에서 ‘命門還與腎脈同 用心子細須尋越’이라고 강조한 것이며, 『난경』에서 『왕숙화맥결』에 이르기까지 변증론치의 수행에 있어 수화의 미묘한 차이를 거듭 강조하였다는 것이 장원소의 해명 취지이다. 이와 같은 논리에서 본다면 ‘同斷’이란 결국 상하좌우의 척존을 비교하여 음양수화의 근원을 변별하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장원소가 九道脈 가운데 動脈의 가결 “動脈根源氣主陰 三關指下礙沈沈 血出一倒經年月 志士名醫只可尋”의 주석에서 “以衛爲葉，榮爲根，血去則根亡，根亡則葉凋。此脈寸有尺無，絕無根。此尺脈第三同斷病也，宜內補丹。出元戎方。一云 動主血敗不止，面色無光，治之宜養血氣，入物湯.”<sup>47)</sup>라고 말한 뜻에 비추어 보면, 同斷의 뜻은 결국 『난경』 8난에서 腎間動氣를 十二經之根本이라 말한 바로 그 뜻을 左右尺의 수화 상에서 더욱 세밀하게 변별하는 뜻을 알 수 있다.

### 3. 脈法

- ⑥ 以此推排具五難輕重之說 關前關後三難說之詳矣
- ⑦ 至數多少十四難以稱之 脈之形象十五難具載之  
 掌後高骨號爲關 骨下關脈形宛然  
 以此推排名尺澤 三部還須子細看

關前爲陽寸口 關後爲陰直下取  
 陽弦頭痛定無疑 陰弦腹痛何方走  
 陽數卽吐兼頭痛 陰微則瀉臍中吼  
 陽實應知面赤風 陰微盜汗勞兼有  
 陽實大滑應舌強 陰數脾熱開口臭  
 陽微浮弱定心寒 陰滑食注脾家咎  
 關前關後辨陰陽 察病根源應不朽  
 一息四至號平和 更加一至大無病  
 三遲四敗冷危困 六數七極熱生多  
 八脫九死十歸墓 十一十二絕魂癢  
 三至爲遲一二敗 兩息一至死非怪  
 遲冷數熱古今傳 難經越度分明載  
 熱卽生風冷生氣 用心指下丁寧記  
 春弦夏洪秋似毛 冬石依經分節氣  
 阿阿緩若春楊柳 此是脾家居四季  
 在意專心察細微 靈機曉解通玄記

脈法은 진맥의 방법과 원리를 포함하는 일종의 진맥 상의 공리를 뜻하는 술어로 『난경』에서 유래한다. 1난에서 “獨取寸口，以決五臟六腑死生吉凶之法”이라 한 것, 3난에서 “過者，法曰太過，減者，法曰不及”이라 한 것, 4난에서는 “脈有陰陽之法”이라 한 것을 보면 모두 직접 ‘法’이라 칭한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미루어 보면 2난의 ‘脈有尺寸’, 3난의 ‘脈有太過不及’, 4난의 ‘脈有陰陽之法’, 5난의 ‘脈有輕重’, 6난의 ‘脈有陽盛陰虛陰盛陽虛’, 14난의 ‘脈有損至’, 16난의 ‘脈有三部九候’, 18난의 ‘脈有三部’ 등의 경우처럼 ‘脈有’로 시작되는 問難들은 모두 기존 맥법에서 새로운 맥법을 추론해낸 것들로서 모두 진맥의 공리에 해당하는 맥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 장원소의 『난경』 맥법에 대한 강조는, 진맥의 실천은 반드시 이들 맥법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며, 실제로 장중경 『상한론』이나 『왕숙화맥결』 모두 이를 기준으로 한 실천의 결과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난경』의 맥법의 준용하여야 함을 강조한 의미로 볼 수 있다.

#### 3.1 ⑥ 以此推排具五難輕重之說 關前關後三難說之詳矣

47) 김공빈 편역, 허준 저. 찬도방론맥결집성. 서울. 현동학당 출판국. 2005. pp.420-421.

以此推排具五難輕重之說

이는 5난을 근거로 경중의 깊이에 따라 오장의 층위를 분별하는 소위 輕重診法을 가리킨다.<sup>48)</sup> 장원소에 의하면 이는 「진맥입식」 제1의 指法으로서 오장의 陰陽升降을 察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指法은 반드시 자세히 살펴야 하니, 손가락으로 三部를 좌우 상하로 밀고 당기어 가면서(推排) 경중의 층위에 따라 차례로 診해나가야 한다. ....이는 五診 輕重의 診法이니, 三部에 五診을 합하면 총 45숙이 된다. 예컨대 察色하여 白色인 경우 맥은 3숙의 무게(깊이)에서 잡혀야 하고, 赤色인 경우 맥은 6숙의 무게에서 잡혀야 하고, 黃色인 경우 맥은 9숙의 무게에서 잡혀야 하고, 青色인 경우 맥은 12숙의 무게에서 잡혀야 하고, 黑色인 경우 맥은 15숙의 무게에서 잡혀야 한다.(凡持脈之法須子細, 用指按三部推排, 次第輕重診之. .... 此五診輕重之法也. 三部五診共四十五菽也, 假令色白脈當得三菽之重, 色赤脈當得六菽之重, 色黃脈當得九菽之重, 色青脈當得十二菽之重, 色黑脈當得十五菽之重.<sup>49)</sup>”

이에 따르면 『왕숙화맥결』의 五臟脈歌에 보이는 五臟病脈은 여기서 말하는 五診輕重 맥법을 기준으로 按診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오장병맥의 안진을 위해서는 좌우 촌관척의 分位와 弦洪毛石의 맥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맥상을 해당 층위에서 검진해 낼 수 있는 손끝의 예민한 지각 능력이 배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5난에서 말하는 오진경중 맥법의 실제 의의이며, 맥의 뿌리가 오장 이기에 이것이 지법에 있어 제1이 되는 것이다. 필자는 『난경』과 『왕숙화맥결』 시대의 고인들이 실제로 이와 같은 정교한 지법을 습득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실제 오장병 진단에 활용한 결과로 이와 같은 지법을 강조하였으리라 생각한다.

關前關後三難說之詳矣

이는 『왕숙화맥결』 맥법에서 『난경』 3난을 근거로 尺寸의 浮沈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일차적으로 병의 음양 즉 表裏를 판단하는 의미를 해명한 것이다.<sup>50)</sup> 바로 「진맥입식」에서 “關前關後辨陰陽 察病根源應不朽”이라 말한 그 뜻이다. 장원소가 특히 3난을 꼭 짚어 거론한 까닭은 3난의 내용이 맥의 음양을 정의하는 기준으로서 지법의 운용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關前은 寸이고 關後는 尺이니, 이로써 음양의 位를 정한다. 「진맥입식」에서 음과 양이라고만 말한 것은 곧 맥의 浮와 沈이니, 부맥이 곧 양이고 침맥은 곧 음이다. (중경이 말한 바) ‘浮爲在表, 沈爲在裏’는 (「진맥입식」의 예처럼) 寸口만 獨浮하거나 尺脈만 獨沈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尺寸이 모두 浮하거나 沈한 것을 말한다. 言表하건대, (「진맥입식」에서) 浮脈은 寸을 기준으로 병의 근원이 在上 在表임을 알고, 沈脈은 尺을 기준으로 병의 근원이 在裏 在下임을 안다. 尺寸에서 浮沈을 살펴서 맥이 浮하면 在上 在表의 象이고 맥이 沈하면 在下 在裏의 象이니 이것이 (「진맥입식」에서 말하는) “識病之根源應不朽”이다. 『난경』에 이르기를 ‘양은 寸口에서 九分을 차지하고 浮하며 음은 尺內에서 一寸을 차지하고 沈한다’ 라고 한 것이 이를 이른다.(關前寸也, 關後尺也, 以定陰陽之位. 但言陰陽者, 乃脈之浮沈也, 浮陽也, 沈陰也, 浮爲在表, 沈爲在裏, 非止寸口獨浮, 尺脈獨沈, 尺寸俱有浮沈. 言浮者法於寸, 知病在表在上之根源也. 言沈者法於尺, 知病在裏在下之根源也. 浮沈在尺寸者, 是察脈之浮者, 在上在表之象也, 沈者在下, 在裏之象也, 是識病之根源應不朽也. 難經曰, 陽得寸口九分而浮, 陰得尺內一寸而沈, 此之謂也.<sup>51)</sup>) “

주석의 마지막에 “難經曰, 陽得寸口九分而浮, 陰

48) 柳長華 主編, 王九思 等 輯. 難經集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14. pp.19-20. “五難曰, 脈有輕重, 何謂也. 然, 初持脈如三菽之重, 與皮毛相得者, 肺部也. 如六菽之重, 與血脈相得者, 心部也. 如九菽之重, 與肌肉相得者, 脾部也. 如十二菽之重, 與筋平者, 肝部也. 按之至骨, 舉指來疾者, 腎部也. 故曰輕重也.”

49) 金公彬 편역, 허준 저. 찬도방론맥결집성. 서울. 현동학당 출판국. 2005. p.66.

50) 柳長華 主編, 王九思 等 輯. 難經集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14. pp.13-14. “三難曰, 脈有太過, 有不及, 有陰陽相乘, 有覆有溢, 有關有格, 何謂也. 然, 關之前者, 陽之動也, 脈當見九分而浮. 過者, 法曰太過, 減者, 法曰不及. 遂上魚爲溢, 爲外關內格, 此陰乘之脈也. 關以後者, 陰之動也, 脈當見一寸而沈. 過者, 法曰太過, 減者, 法曰不及. 遂入尺爲覆, 爲內關外格, 此陽乘之脈也. 故曰覆溢, 是其眞藏之脈, 人不病而死也.”

51) 金公彬 편역, 허준 저. 찬도방론맥결집성. 서울. 현동학당 출판국. 2005. p.79.

得尺內一寸而沈，此之謂也”라고 말한 것은 2년의 설로서 척촌의 부침을 음양으로 규정하는 『난경』의 뜻은 2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왜 “關前關後三難說之詳矣”라고 하여 3년을 가리켰을까? 이는 「진맥입식」에서 “關前關後辨陰陽 察病根源應不朽”라고 말한 맥의 음양은 구체적으로 2년에서 말한 浮沈 尺寸의 위와 3년에서 말한 太過不及의 勢를 결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파악됨을 설명한 뜻으로 볼 수 있다. 뒤에서 至數의 多少로 寒熱을 판단하는 맥법의 설명에 보면, 구체적으로 3년에서 음양 편향의 형세를 脈有太過, 有不及, 有陰陽相乘, 有覆有溢, 有關有格 등의 등급으로 평가함으로써 병의 大小를 판단한다는 설명을 볼 수 있다. 尺寸의 浮沈을 근거로 맥의 음양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진맥입식」의 다음 가결에 대한 주석에서 보인다.

陽弦頭痛定無疑 陰弦腹痛何方走  
 陽數即吐兼頭痛 陰微則瀉脾中吼  
 陽實應知面赤風 陰微盜汗勞兼有  
 陽實大滑應舌強 陰數脾熱開口臭  
 陽微浮弱定心寒 陰滑食注脾家咎

위의 陰陽은 장원소의 설명대로 모두 尺寸의 浮沈을 가리킨다. 예컨대 陽弦은 寸部の 뜻이고 陰弦은 尺弦의 뜻인 것이다. 척촌의 부침 즉 음양에 결합된 寸弦尺弦 / 寸數尺微 / 寸實尺微 / 寸實尺數 / 寸微尺滑 등의 待對와 그에 연계된 병증은 모두 척촌 음양의 기울기 즉 太過不及의 정도를 상호 대비하여 음양을 변별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장원소의 가결에 대한 주석을 검토해보면, 浮弦頭痛이 風邪在表라면 沈弦頭痛은 風邪在裏이며, 浮數嘔吐頭痛이 熱邪在表라면 沈微泄瀉腹痛은 寒邪在裏를 뜻하고, 浮實面赤이 風熱在表라면 沈微盜汗은 寒邪在裏이고, 浮實舌強이 表의 氣實이라면 沈數口臭는 邪熱의 在裏이며 浮微心寒이 表氣의 外虛라면 沈滑食注는 寒在裏라고 평가하여 모두 寒熱風氣 사기의 表裏 소재를 변별하는 의미로 해석하였음을 볼 수 있다.<sup>52)</sup>

52) 김공빈 편역, 허준 저. 찬도방론맥결집성. 서울. 현동학당 출판국. 2005. pp.70-78.

### 3.2 ⑦ 至數多少十四難以稱之 脈之形象十五難具載之

至數多少十四難以稱之

至數多少는 『난경』 9년에서 “數者府也，遲者藏也。數則爲熱，遲則爲寒。諸陽爲熱，諸陰爲寒，故以別知藏府之病也。”<sup>53)</sup>라고 하여 脈의 遲數으로 병증의 寒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臟腑의 소재를 추단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진맥입식」은 9년의 맥법과 14년의 損至 맥법의 병세 경중 논리를 결합함으로써 장부병의 경중을 판단하는 맥법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장원소에 따르면 至數의 기준은 4년에서 “呼出心與肺，吸入腎與肝，呼吸之間，脾受穀味也。”<sup>54)</sup>라고 말한 것이 기준이다. 즉 心肝肺腎 및 脾臟이 모두 天真造化之氣를 받는 것이 기준이 되므로 「진맥입식」에서 “一息四至號平和 更加一至大無病”라고 하여 1식당 4至 내지 5至를 기준으로 삼는다.

“1호1흡이 1식이니 1호에 맥이 2회 이르고 1흡에 맥이 2회 이른다.(난경 14년) 따라서 호기가 심과 폐에서 나옴에 맥이 2회 이르고 흡기가 신과 간으로 들어감에 맥이 2회 이르니, 이렇게 되면 심폐간신이 각기 1회씩 이르러 통털어 4회 이르는 셈이다.(난경 4년) 심기는 여름에 통하고 폐기는 가을에 통하고 신기는 겨울에 통하고 간기는 봄에 통한다.(소문 금궤진언론) 1식의 사이에 4시의 맥을 얻으므로 “평화”라고 하였다. 여기에 1회가 더해지는 것은 호흡의 사이에 맥이 1회 이르는 것이니 비가 오미를 받는다고 한 것이 이것으로 이것이 위기이다. 그러므로 오장이 각기 1회씩 이름을 평이라 한다.(一呼一吸爲一息也，是一呼脈行兩至，一吸脈行兩至，乃呼出心與肺，脈行兩至，吸入腎與肝，脈行兩至，是心肝肺腎各一至，通四至也。心氣通於夏，肺氣通於秋，腎氣通於冬，肝氣通於春。一息之間，

53) 柳長華 主編, 王九思 等 輯. 難經集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14. p.23. “九難曰, 何以別知藏府之病邪. 然, 數者府也, 遲者藏也. 數則爲熱, 遲則爲寒. 諸陽爲熱, 諸陰爲寒, 故以別知藏府之病也.”

54) 柳長華 主編, 王九思 等 輯. 難經集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14. pp.17-18. “四難曰, 脈有陰陽之法, 何謂也.

呼出心與肺, 吸入腎與肝, 呼吸之間, 脾受穀味也, 其脈在中. 浮者陽也, 沈者陰也, 故曰陰陽也.”

是得四時之脈，故號平和。更加一至者，是呼吸之間，脈行一至，乃脾受五味也，是有胃氣，故五臟各一至曰平.55) “

장원소는 「진맥입식」에서 至數와 息數의 비율에 따라 “三遲四敗冷危困 六數七極熱生多 八脫九死十歸墓 十一十二絕魂癡 三至爲遲一三敗 兩息一至死非怪”와 같은 방식으로 병세의 경중을 평가하는 근거를 예의 3년의太過不及 맥법의 논리를 빌어 해명하고 있다. 3년은 병세의 진행에 따라 음양의 기울기가 붕괴되는 정도를 양승과 음승, 양복과 음일, 양관과 음격으로 등차를 나누어 규정하였는데, 3년의 이러한 논리를 14년에 결합하여 병세의 경중을 3단계로 변증한 것이 바로 위의 「진맥입식」 가결의 의미라는 것이다. 至數가 증감하는 과정이 氣化 상의 寒熱의 심화 과정이며, 한열 심화의 결과로 臟腑 음양의 쓸림이 가중된다는 논리가 곧 9년에서 말하는 “數者府也，遲者藏也。數則爲熱，遲則爲寒。諸陽爲熱，諸陰爲寒，故以別知藏府之病也.”의 의미인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脈之形象十五難具載之

이는 『난경』 15년에서 말한 오장맥 형상의 맥법상 의미를 말한 것이다.<sup>56)</sup> 「진맥입식」의 해당 가결은 다음과 같다.

“春弦夏洪秋似毛 冬石依經分節氣  
阿阿緩若春楊柳 此是脾家居四季  
在意專心察細微 靈機曉解通玄記”

‘依經分節氣’란 표현이 난해한데, 장원소는 이를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

‘分節氣’는 십이경맥이 각기 주재하는 바가 있음

을 말한다. 중략. 春夏秋冬은 節이고 寒熱溫涼은 氣이며 弦洪毛石은 맥의 體樣이다. 四時의 脈이 각기 소속 장부의 십이경맥에 의탁하여 주재한다. 이것이 바로 사시의 절기를 나누는 뜻이다. …『옥기』에 이르기를 ‘脈從四時，爲之可治.’라고 하였다.(分節氣者，十二經各有所主 … 此爲地之十二辰所主節氣也. 春夏秋冬，節也，寒熱溫涼，氣也，弦洪毛石，脈之體樣也，四季之脈，各依腑臟之十二經部分，以主之，是爲分四時之節氣也. … 《玉璣》云 脈從四時，爲之可治.57)

춘하추동이 節이고 한열온량이 氣라는 말의 뜻은 오장이 본이고 경맥이 標가 되므로 경맥의 한열온량 기화는 근원적으로 五臟에 의해 주재되고 오장의 뿌리는 그 眞藏에 있으므로 병기의 한열온량과 아울러 그 근본인 오장맥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내경 이래로 사시와 오장을 상응관계로 설정하는 근거는 장원소에 따르면 四時와 五臟脈이 모두 天道左行에 상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맥이 時에 응하면 天眞造化之氣가 끊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可治이고, 맥이 時에 역하면 끊어진 것이므로 死不治라고 말할 수 있다.

#### 4. 病機

- ⑧ 遲冷數熱 乃臟腑汗下 血營氣衛不失天度爲常 過則生七表 不及則生八裏 皆從血氣內外 以察乎虛實邪正之理
- ⑨ 假令熱生風 冷生氣 熱生風而制火 冷生氣而制水 以此舉金木爲例 餘倣此
- ⑩ 木主風而金主氣 火化熱而水化寒

遲冷數熱古今傳 難經越度分明載  
熱即生風冷生氣 用心指下丁寧記  
春弦夏洪秋似毛 冬石依經分節氣  
阿阿緩若春楊柳 此是脾家居四季  
在意專心察細微 靈機曉解通玄記  
浮乳滑實弦緊洪 七表還應是本宗  
微沈緩瀦遲并伏 濡弱相兼八裏同  
血營氣衛定息數 一萬三千五百通

55) 김공빈 편역, 허준 저. 찬도방론맥결집성. 서울. 현동학당 출판국. 2005. p.94.

56) 柳長華 主編, 王九思 等 輯. 難經集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14. pp.39-45. “十五難曰，經言春脈弦，夏脈鉤，秋脈毛，冬脈石，是王脈耶，將病脈也。然，弦，鉤，毛，石者，四時之脈也。春脈弦者，肝東方木也，萬物始生，未有枝葉。故其脈之來，濡弱而長，故曰弦。夏脈鉤者，心南方火也，萬物之所茂，垂枝布葉，皆下曲如鉤。故其脈之來疾去遲，故曰鉤。秋脈毛者，肺西方金也，萬物之所終，草木華葉，皆秋而落，其枝獨在，若毫毛也。故其脈之來，輕虛以浮，故曰毛。冬脈石者，腎北方水也，萬物之所藏也，盛冬之時，水凝如石，故其脈之來，沈濡而滑，故曰石。此四時之脈也。후략.”

57) 鄭金生 主編. 海外回歸 中醫善本古籍叢書(1)-潔古老人注 王叔和脈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p.244. 이 주석은 『찬도맥결』에는 없고 『결고주맥결』에만 있다.

4.1 ⑧ 遲冷數熱 乃臟腑汗下 血營氣衛不失天度爲常 過則生七表 不及則生八裏 皆從血氣內外 以察乎虛實邪正之理

이는 장원소가 위의 脈法에서 논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病機論의 의미를 밝힌 것이다.<sup>58)</sup> 장원소는 진맥에서 병기가 지나는 의의를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내경』의 이른바 ‘謹候氣宜 無失病機’에서 病機란 寒暑燥濕風의 金木水火土를 말하니, 만병이 실로 여기에서 生한다. 그러므로 삼가 病機의 뿌리를 察하여 치료의 요령을 터득해야만 능히 병을 완치할 수 있다.(經所謂 謹候氣宜 無失病機, 病機者, 寒暑燥濕風, 金木水火土, 萬病實自此而生矣. 故謹察病機之本, 得治之要者, 乃能愈疾.<sup>59)</sup>)”

‘遲冷數熱乃臟腑汗下’의 9글자는 『난경』 9단에서 “諸數爲熱, 諸遲爲寒, 諸陽爲熱, 諸陰爲寒”이라 규정된 지령삭열로 장부를 판단함에 근거하여 汗下의 처방을 적용하는 것이 「진맥입식」 병기론의 핵심임을 말한 것이다. 맥법과 연관시켜 보면 이는 ⑦의 ‘至數多少十四難以稱之 脈之形象十五難以載之’에 의거하여 수행된다고 볼 수 있다. 즉 至數多少로 寒熱을 판단하고, 맥의 형상으로 오장의 太過不及을 판단하는 방법을 결합하는 맥법에 따라야 한다. 「진맥입식」 서두에서 左陽不升의 陽不及이면 汗法이 可하고 右陰不降의 陰太過이면 下法이 可함을 대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대법은 맥법의 운용 면에

서 보면 오장의 한열허실 병기를 파악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遲冷數熱乃臟腑汗下’가 遲數을 기준으로 장부의 한열을 살피는 오행 오장 중심의 논법이라면, ‘血營氣衛不失天度爲常 過則生七表 不及則生八裏’의 七表八裏의 浮沈을 기준으로 營衛의 虛實을 헤아리는 三陰三陽 경맥 중심의 논법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血營氣衛不失天度爲常 過則生七表 不及則生八裏’의 의미는 영위의 허실 관계에 따라 陽 즉 衛氣가 不升하면 左(表)로 七表를 生하고 陰 즉 營氣가 不降하면 右(裏)로 八裏를 生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營衛의 表裏 간 邪正을 살피는 데에는 ⑥ ‘以此推排具五難輕重之說 關前關後三難說之詳矣’의 맥법이 준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3년의 浮沈 맥법과 5년의 輕重 진법이 그것이다.

먼저 장부의 한열을 말하고 이어서 영위의 표리를 말한 것은 장부가 영위의 본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련을 ‘血營氣衛不失天度’라고 하였으니, 血氣가 內外로 營衛하는 순환 과정은 天真造化之氣로서의 맥에 의지한다. 때문에 ‘皆從血氣內外’ 즉 기혈이 맥을 따라 내의 오장과 외의 경맥을 천도좌행의 원리고 순행하고 있으므로, ‘以察乎虛實邪正之理’ 즉 天真造化의 眞氣를 藏한 바 오장의 허실과 그에서 비롯되는 邪正의 이치를 살피야 한다는 것이다. 장원소는 이상과 같이 오장을 중심으로 허실한열과 생사역순을 살피는 것이 「진맥입식」이 말하는 병기논리의 핵심임을 『의학계원』 「臟腑經絡脈證法」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대체 인신에 오장육부가 있어 허실한열과 생사역순이 모두 證과 脈氣에 나타나니, 만약 맥을 切診하지 않는다면 알 길이 없다. 허하면 보하고 실하면 사하며, 寒하면 溫으로 치료하고 熱하면 涼으로 치료하되 허도 실도 아니면 以經治之한다. 이것이 良醫의 대법이다.(夫人有五臟六腑 虛實寒熱 生死逆順 皆見證脈氣 若非診切 無有識也 虛則補之 實則瀉之 寒則溫之 熱則涼之 不虛不實 以經調之 此乃良醫之大法也<sup>60)</sup>)”

58) 「진맥입식」은 『난경』 맥법과 자신의 병기 추구를 착중하여 기술하였으나, 장원소는 양자를 구분하여 뒤에서 별도로 「진맥입식」 病機論의 특징을 해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위 「진맥입식」의 가결 가운데 괄호친 4절은 『난경』 15단 脈之刑象에 해당하는 내용과, 이상의 『난경』 맥법 인용에 대한 결어로서 指法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이나 위의 脈法章과 내용이 중복된다. 「진맥입식」은 『난경』의 한열 병원을 기반으로 자신의 ‘熱生風冷生氣’의 상경 논리를 확충하는 한편 병기 추구의 근원에 오장맥이 있음을 상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상의 病機를 추구하는 구체적인 지법의 운용 과정에서 반드시 脈象과 病機가 합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다. 최후의 4절은 칠표팔리맥으로 표현되는 맥의 병리적 변화는 직접적으로는 血氣內外의 변화를 표상하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一萬三千五百으로 표상되는 五臟眞元之氣가 통하여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문장 전체를 총결하고 있다.

59) 宋乃光 主編, 劉完素醫學全書-素問病機氣宜保命集·原脈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24.

60) 김용진, 조학준 편역. 장원소 원저. 현도완역 醫學啓源.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6.

4.2 ④ 假令熱生風 冷生氣 熱生風而制火 冷生氣  
而制水 以此舉金木為例 餘倣此

이는 「진맥입식」에서 말하는 ‘熱生風 冷生氣’의 病機를 오행 制化의 원리로 해명한 것이다. 制化는 사기의 오장 간 전이를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장원소의 病機-用藥 논리에서 중요한 위상을 점한다.

“대법을 말한다. 전인의 용약은 당시의 대중을 기준으로 약을 쓴 것이다. 후인이 이를 쓸 때에는 의당 지하의 맥기를 직접 체찰하여 그에 따라 가감해야 한다. 내가 前人의 用藥을 무시하여 스스로 내 방법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다. 대개 오행의 相制, 相兼과 生化, 制勝의 體는 한 순간에도 變亂이 無常한 것이고, 驗脈과 처방 역시 前人의 시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後에 이러한 이치에 通한 자가 있으면 분명히 내 말이 맞다고 여길 것이다.(大法曰 前人方法 則當時對證之藥也 後人用之 當體指下脈氣 從而加減 否則不效 余非鄙乎前人而自用也 蓋五行相制相兼 生化制勝之體 一時之間 變亂無常 驗脈處方 亦前人之法也 厥後通乎理者 當以余言爲.61) ”

‘熱生風冷生氣’는 구체적으로 金木을 예로 들어 相兼에 의한 병기 전화의 원리를 표명한 것인데, 장원소는 이를 『난경』 75년의 瀉南補北 논리를 들어 해명하고 있다.

“熱은 남방의 화기이고, 風은 동방의 목기이며, 冷은 북방의 수기이고 氣는 서방의 금기이니 五方의 안에서는 의당 목이 화를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목생화라 하지 않고 거꾸로) 熱生風이라 말한 것은 75년에서 말하는 “子能令母實”의 실사이기 때문이다. 이는 목 안에 화가 들어가 (목중의 화가) 금으로 하여금 목을制하지 못하게 함을 이르니 여기에는 금이 화를 두려워하는 뜻이 들어있다. 때문에 熱即生風이라 하였다. 이는 남방의 화가 실하여 서방의 금이 허한 것이므로 이치 상 남방화를 사하고 북방수를 보해야 한다. 화가 줄어들면 금이 왕성해져 목을 자연히 허하게 하므로 풍이 저절로 사그라들 것이다. 보사의 용약은 어떻게 하는가? 예컨대 大承氣湯은 味苦하여 화를 사하고 氣寒하여 북방수를 보한다. 또 芒硝의

辛寒은 능히 금을 滋潤하고 수를 늘릴 수 있다. 『난경』에 이르기를 실행하면 그 자식을 사한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冷生氣 역시 “子能令母實”의 실사에 해당한다. 수가 성하여 冷이 氣를 생하니, 금 속으로 수가 들어가 (금중의 수가) 화로 하여금 금을制하지 못하게 함을 이르니 여기에는 화가 수를 두려워하는 뜻이 들어있다. 이는 북방의 수가 실하고 남방의 화가 허한 것이므로 치법은 의당 북방수를 사하고 남방화를 보해야 한다. 수가 줄어들면 화가 성함을 되찾아 금이 자연히 허해지고 기가 저절로 허해질 것이다. 보사의 용약은 어떻게 하는가? 예컨대 薑附湯은 辛甘發散의 陽藥이니 氣熱하여 한을 제어하고 甘辛의 味로는 수와 금을 사하고 화와 목을 보할 수 있다. 이는 實則瀉其子の 원리이다. 의당 이러한 원리를 ‘用心指下記’ 할 것이니 三至二敗와 六殺七極의 병세 경중을 변별해야 한다.(熱者南方火, 風者東方木, 冷者北方水, 氣者西方金, 五方之中, 當云木生火, 金生水者, 是也. 今云熱則生風者, 乃子能令母實, 謂木中有火, 使金不能制木, 是金有懼火之意, 故云熱則生風, 是南方火, 實則西方金虛也, 法當瀉南方火補北方水, 火滅則金得其盛, 木自虛而風自止矣. 何爲補瀉之藥. 假令大承氣湯以味苦瀉火, 以氣寒補水, 以硝之辛寒潤燥益水, 經云實則瀉其子. 冷生氣者, 亦是子能令母實, 而水盛則冷生氣, 金中有水, 使火不能制金, 是火有懼水之意, 是北方水實, 則南方火虛也. 治法當瀉北方水補南方火, 水滅則火得其盛, 金自虛而氣自虛矣. 何爲補瀉之藥. 假令薑附湯, 以辛甘發散爲陽, 以氣熱制寒, 以味之甘辛瀉水及金而補火及木也. 此實則瀉其子也, 當用心指下記, 三遲二敗六殺七極之別.62) “

이상에서 오행 상극 관계에서 制化라고 말하고, 병기의 전화 면에서 相兼이라 말하는 뜻을 볼 수 있다. 相兼 즉 병기의 전화는 병이 오장에 전이하여 위증으로 발전함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치법을 설정할 때에는 過極한 기를 사하는 것으로서 병의 근본을 삼아야지 그 兼化의 기를 반대로 誤治하면 안된다. 대체 五常之道가 甚한데 制化가 없으면 조화의 신기가 끊어진다. 예컨대 桴木이

61) 김용진, 조학준 편역. 장원소 원저. 현도완역 醫學啓源.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6.

62) 김공빈 편역, 허준 저. 찬도방론맥결집성. 서울. 현동학당출판국. 2005. p.98.

왕성하여 풍이 심한 경우, 풍기가 많으면 반대로  
涼氣가 생기니 이는 반대로 금이 制化하여 과극한  
목을 억제하는 兼化 현상인 것이다.(其爲治者 俾以  
瀉其過極之氣 以爲病本 不可反誤治其兼化也 夫五常  
之道甚 而無以制之 則造化息矣 如春木旺而多風 風  
大則反涼 是反兼金化制其木也<sup>63)</sup>)”

위 설명이 「六氣病解」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보  
면 熱生風은 六氣病의 범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설명에 있어 목극과 같은 오행을 언급하였고 五傷之  
道甚이라 표현한 것을 보면 오장병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熱生風冷生氣가 외의 경락에서 中의 오장으로 병  
세가 전화하는 병기를 해명한 뜻은 『왕숙화맥결』에  
오장맥가와 함께 전하는 左右手診法에 대한 장원소  
의 다음 주석에서 구체적인 의미를 엿볼 수 있다.

“左右須候四時脈 四十五動爲一息 指下弦急洪緊  
時 便是有風兼熱極 (潔古曰 經云<sup>64)</sup>熱即生風是也)  
忽然匿匿慢沈細 冷疾纏身兼患氣(潔古曰 經云冷  
生氣是也.)

賊脈頻來問五行 屋漏雀啄終不治”

가결 원문에 相兼의 뜻이 이미 ‘風熱兼極’, ‘冷疾  
兼氣’에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장원소는 맥상에서  
병기를 추구하는 의미를 해명하여, 脈數가 數한데다  
弦急이나 洪緊과 같이 有餘한 象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이는 數의 熱에 弦緊의 風을 겸하였으니 곧 熱  
生風이며, 脈數가 遲한데 홀연이 잠복하여 보이지  
않고 가느다래져 不足한 象이 나타나는 경우 이는  
遲의 寒에 沈細의 음이 더해졌으니 곧 冷生氣이  
다.<sup>65)</sup> 그런데 左右手診歌 가결을 보면 장원소가 熱

生風 冷生氣의 사례라 지적한 다음 구에 바로 소위  
賊脈으로 칭하는 屋漏雀啄의 眞藏脈이 나타남을 볼  
수 있으니, 冷生風熱生氣가 오장 전화의 병기를 언  
급한 것임이 분명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장원소는 相兼을 맥상을 들어 변별하였지  
만 주석 말미에서 “三遲二敗六殺七極之別”라고 주문  
한 바와 같이 至數의 증감을 통해 변별하는 것이 원  
칙이다. 다음은 지수의 증감 비율에 따른 한열의 가  
중 즉 병의 대소를 설명한 「진맥입식」의 가결이다.

“一息四至號平和 更加一至大無病

三遲四敗冷危困 六數七極熱生多

八脫九死十歸墓 十一十二絕殘瘥

三至爲遲一二敗 兩息一至死非怪”

여기에 보면 “三遲四敗冷危困 六數七極熱生多”라  
고 하였으니, ‘冷危困’에 이미 冷生氣의 단서가 들어  
있고 ‘熱生多’에 이미 熱生風의 단서가 들어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장원소의 주석은 다음과 같  
다.

“1식4지는 비로 평화라 칭하지만 오히려 위기  
의 1지가 모자라므로 마땅히 온법으로 치료해야 한  
다. 1식3지는 陰乘陽이므로 열법으로 치료해야 하  
며 1식2지는 陰溢於陽이므로 열법으로 并除해야 한  
다. 1식6지는 양태과음불급이므로 涼法으로 치료해  
야 하고 1식7지는 陽乘陰이므로 寒法을 치료해야  
한다. 1식8지는 陽覆於陰으로 음이 양을 이기지 못  
하여 탈함을 뜻한다. 1식9지는 陽關於陰이니 無陰  
則死에 해당한다. 10지도 마찬가지로이다. 11지와 12  
지는 양이 음과 함께 다 끊어지는 모습이다. 1식1  
지는 陰格於陽이니 음이 패하여 죽음을 뜻한다. 2  
식1지는 음이 홀로 끊어지는 것이 이를 사맥이라  
한다.(其一息四至雖號平和, 猶少胃之一至, 爲陰太  
過, 當以溫治之. 一息三至是陰乘陽也, 當以熱治之,  
二至是陰溢於陽也, 當以熱并除之. 一息六至, 爲陽  
太過陰不及, 以涼治之, 一息七至, 是陽乘陰也, 以  
寒治之. 一息八至, 是陽覆於陰也, 陰不勝陽則脫,  
一息九至, 是陽關於陰也, 是無陰則死, 十至亦然.  
十一十二, 乃陽欲併絕之狀也. 一息一至, 陰格於陽

63) 김용진, 조학준 편역. 장원소 원저. 현토완역 醫學啓源.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116.

64) 장원소는 여기서 『왕숙화맥결』의 가결을 인용하면서 ‘經  
云’이라 칭하였으니, 이를 사실상 ‘脈經’으로 간주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65) 八裏脈 가결의 장원소 주석을 검토하면 ‘冷生氣’가 무슨  
뜻인지 구체적 경황을 살펴볼 수 있다. 微脈의 가결에서  
‘微脈關前氣上侵’이라고 한 것에 대하여 “氣上衝은 곧 陽  
虛로 內氣上衝한 것이니 經曰冷生氣에 해당한다.(김공빈  
편역, 허준 저. 찬도방론맥결집성. 서울. 현동학당출판국.  
2005. p.346.)”라고 하였고, 沈脈의 가결에서 曰沈主氣脹  
脇滿主이라고 한 것에 대하여 氣脹兩脇은 곧 虛氣가 衝心  
한 소치이며 이것은 冷生氣에 다음 아님을 말하고, 때문  
에 처방 또한 補火瀉水의 원칙에 입각하여 溫熱之劑를 선

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虛氣衝心, 悶而不痛, 乃曰虛痞,  
健胃理中湯·健中湯主之. 手足冷, 治之以八物湯.)(김공빈 편  
역, 허준 저. 찬도방론맥결집성. 서울. 현동학당출판국.  
2005. p.351.)

也, 敗死也。兩息一至, 陰獨絕, 謂之死脈也. 66) ”

이상에서 ‘陽乘陰, 陰乘陽’ 등의 병세의 정도를 표현하는 개념의 구체적인 뜻은 「진맥입식」의 가결 ‘難經越度分明載’에 대한 주석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난경』 9년에 ‘諸數爲熱, 諸遲爲寒, 諸陽爲熱, 諸陰爲寒.’ 이라 하였으니, (3년의) 맥법에 “有太過有不及, 有陰陽相乘, 有覆有溢, 有關有格.” 라고 한 것을 말한다. 진월인이 절맥의 소이를 이(3년의) 4문(태과불급, 음양상승, 복일, 관격)의 4등급)에서 일으켜 그로써 음양과 사생을 판별하였다. 때문에 『소문』에서 ‘病有大小, 治有淺深, 當謹察之.’ 라고 말하였다.(難經諸數爲熱, 諸遲爲寒, 諸陽爲熱, 諸陰爲寒, 脈有太過有不及, 有陰陽相乘, 有覆有溢, 有關有格, 所以越人切脈以興此四問, 以別陰陽死生, 故曰病有大小, 治有淺深, 當謹察之. 67) ”

이상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한열의 심화에 따른 ‘病之大小’를 맥의 지식으로 평가하는 맥법이 「진맥입식」에서 말하는 ‘難經越度’<sup>68)</sup>의 뜻이고 3년의 뜻이라는 것이다. 발병 초기에 정기의 수상이 심하지 않아 병기가 단순한 한열에 그칠 때에는 직접 한열 온량을 따라 치료하면 될 것이지만, 오장의 진기가 수상하여 정기가 폐되면서 한열과 풍기가 착종하는 상경 현상이 나타나면 오장 생극의 균형이 무너져 급속도로 병세가 악화되게 된다. 따라서 병기 전화의 시단에 위치한 ‘熱生風 冷生氣’의 단계에서 오장 정기의 구원에 힘써야 하며, 이때 현상적으로 보이는 風이나 氣가 병의 본이 아니고 熱과 冷이 병의 근본 것이므로 오행 제화의 원리에 따라 瀉火補水, 瀉水補火의 방법으로 夫婦五行의 虛實을 조절하여 치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4.3 ㉔ 木主風而金主氣 火化熱而水化寒

66) 김공빈 편역, 허준 저. 찬도방론맥결집성. 서울. 현동학당출판국. 2005. p.94.

67) 김공빈 편역, 허준 저. 찬도방론맥결집성. 서울. 현동학당출판국. 2005. p.97.

68) ‘難經越度’는 글자 뜻 그대로 보면 『난경』 秦越人の 도수라는 뜻이다. 허준은 여기에 “渤海秦越人作難經”이라고 주석을 붙여 ‘越’이 곧 秦越人임을 분명히 하였다. 김공빈 편역, 허준 저. 찬도방론맥결집성. 서울. 현동학당출판국. 2005. p.96.

이는 위의 논의를 총결하여 병기-용약의 대법을 약술한 것이다. 다음에서 말하는 夫婦虛實邪正法이 그것이다.

“오장육부에 유여가 있고 부족이 있으므로 실을 유여로 정의하고 허를 부족으로 정의한다. 유여하면 脈法에 의당 先時를 기준으로 하고(實則瀉子) 부족하면 의당 後時를 기준으로 한다(虛則補母)고 하였다. 從前來者는 實邪라 하니 막혀 통하지 않으므로, 유여하면 그 자식을 사하여 흐르게(流) 하고, 그치지 않고 졸졸 흐르는 것은 子母의 虛邪(從後來者)이므로 의당 보하여 머무르게(留) 해야 한다. 가는 것을 머무르게 하고(行留) 막힌 것을 흐르게 함을(流住) 子母(보사)라 이른다. 언컨대, 補瀉證이라면 補瀉를 부부 관계의 虛實邪正의 법에 따라 행한다. 施鍼과 用藥이 모두 이와 같으니, 脈法에는 ‘有餘先時, 不足後時’ 라고 하였다.(五臟六腑有餘有不足, 故實爲有餘, 虛爲不足, 有餘法當先時, 不足法當後時. 前曰實, 塞而不通, 故曰有餘瀉其子而流之, 涓涓不息, 子母之虛也, 當補以留之, 行留流住, 69) 謂之子母. 言補瀉證也, 補瀉者爲夫婦虛實邪正法, 施鍼用藥皆如此. 脈法者, 有餘先時, 不足後時. 70) ”

‘子母’, ‘夫婦’ 등 말은 오행의 상생과 상극 관계를 종합하여 치법을 논구함을 시사한다.<sup>71)</sup> 앞에서는 자모 관계에서 발생하는 虛事와 實邪의 경우에 보사를 일방으로 시행함을 말했고, 뒤에서는 상극 관계에서 제화 및 상경이 발생하여 허실이 착종되는 경우를 補瀉證이라 구별하여 말했다. ‘補瀉者爲夫婦虛實邪正法’은 상경이 발생하여 보사증이 된 경우에는 부부의 생극 관계를 축으로 보사를 동시에 시행해야 함을 말한다. 이 원리는 허사와 실사의 치법을 안에

69) 鄭金生의 교감에 따르면 『결고주맥결』에는 “以留之行留流住”가 “以流之行留流住”로 되어 있던 것을 『찬도맥결』에 따라 ‘流’를 ‘留’로 고쳤다고 한다. 이 구절의 문어가 난해함을 볼 수 있는데 허준이 문맥에 맞게 교정하여 문어가 쾌통함을 볼 수 있다.(鄭金生 主編, 海外回歸 中醫善本古籍叢書(1)-潔古老人注王叔和脈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p.245.)

70) 김공빈 편역, 허준 저. 찬도방론맥결집성. 서울. 현동학당출판국. 2005. p.108.

71) 김용진, 조학준 편역. 장원소 원저. 현토완역 醫學啓源.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187. “我生者父母, 我我者子孫, 克我者鬼賊, 我克者妻財.”

포함하고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用藥의 大法이라 말할 수 있다.

#### 4.4 ㉑ 故解入式

이 4글자는 「진맥입식해」의 결어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서두의 “且夫入式 得之於心 應之於手 行之於用 得旨趣者少” 21글자를 직접 받아 그러한 취지를 이유로(故)는 解한다는 뜻이며, 그와 같은 취지를 그대로 困하여 解한다는 뜻이다. 전체적인 글의 구성이 서두에 말한 진맥 학습의 지취와 뒤에서 말하는 大義, 脈法, 病機가 서로 反照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 IV. 고찰

이상 張元素 자신의 주석들과 여타 저술들을 참고로 「診脈入式解」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장원소의 해설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는 최종적으로 독자에게 맡겨지겠지만, 그에 앞서 『王叔和脈訣』 비판의 종결판으로서 李時珍의 「脈訣考證」에 나타난 『왕속화맥결』 비판의 논리와 장원소의 입장 및 관점을 비교, 검토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한다. 李時珍이 「脈訣考證」을 통해 요약한 네 가지 비판 주제와 세부적인 논거들은 맥학의 주요 논리를 포괄하는 것들로서 오늘날 맥학 관련 연구들에서도 어김없이 거론됨을 볼 수 있다. 때문에 양자의 입장과 논리에 대한 비교와 검토는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태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조망점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脈訣考證」은 「瀕湖脈學」, 「四言舉要」와 함께 『本草綱目』에 부록되어 있다.<sup>72)73)</sup> 李時珍에 있어 「

맥결고증」이 『왕속화맥결』에 대한 비판 논리를 집성, 요약한 것이라면, 「瀕湖脈學」, 「四言舉要」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시진이 이들 작업에 의해 제기한 일련의 『왕속화맥결』에 대한 비판과 맥학 지식에 대한 정리는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쳐 「빈호맥학」이 『왕속화맥결』을 대체하기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 「맥결고증」은 『왕속화맥결』을 비판하는 주요 논리를 「脈訣非叔和書」, 「七表八裏九道之非」, 「男女脈位」, 「臟腑部位」의 4가지 주제로 압축하여 각기 考證을 진행한 일종의 논문이다.<sup>74)</sup> 열거한 주제순으로 주요 내용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脈訣非叔和書」의 설. 『왕속화맥결』이 王叔和의 저작이 아니라 六朝人 高陽生의 표절로서 詞旨가 鄙賤하다는 비판은 일찍이 송인 陳無擇이 제기하여 朱子가 화답함으로써 세간에 널리 알려졌다. 허준 역시 발문에서 이를 언급한 것을 보면 당대 동아시아 지식인들에게 보편의 사실로 알려졌을 것이다. 이시진은 이에 대하여 주자 이래 제가의 주장을 들어 표절의 위작임을 사실로 인정하는 한편, 마지막으로 錢溥라는 사람을 설을 인용하여 “及託叔和脈訣行, 而醫經之理遂微”<sup>75)</sup> 즉 『왕속화맥결』로 인해 「脈經」의 理가 희미해진다는 말로 마치고 있다. 「脈訣非叔和書」라는 말은 「脈經」이 「내경」, 「상한론」 등 醫經을 이은 정통 논리에 입각한 것에 비하면, 『왕속화맥결』은 이름만 가탁하였을 뿐 그 논리가 의경의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근본적으로 오류라는 의미로 회자되었다. 이것이 『왕속화맥결』에 대한 종합적 평가의 성격을 지닌다면, 나머지 세 가지는 『왕속화맥결』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비판에 해당한다. 둘째 「七表八裏之非」는 醫經에 이런 논법이 없다는 역사적 근거, 또 맥의 변화는 음양으로부터 발생하므로 음양의 待對로 말하여 각각 그 類를 좇는 경전의 방법이 옳다는 논리적 근거, 나아가 『왕속화맥결』의 구체적인

72) 이시진이 『왕속화맥결』의 대안으로 제시한 『四言舉要』는 송대 崔嘉彦의 소위 『崔氏脈訣』에 기반한 것이다. 최가언으로부터 비롯되는 西源學派의 전승을 연구한 윤에 따르면 『맥결리현비요』의 저자 劉開는 최가언의 초전제자라고 한다.(윤창열, 西源學派 의가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3. 26(3). pp.1-11.)

73) 『왕속화맥결』의 중국식 전승으로 볼 수 있는 『최씨맥결』은 『東垣十書』의 첫머리에 실림으로써 조선 의학계에도 널리 알려졌으며, 『동의보감』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송의 연구에 따르면 『동의보감』에 인용된 「맥결」 문장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최씨맥결』의 그것이다.(송지정, 엄동명. 『동의보감』 중 「맥결」 인용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4. 27(4). pp.171-180.)

74) 박경 역석, 국역 빈호맥학 사언거요 기경팔맥고 부 맥결고증. 서울. 대성문화사. 1992. p.113.

75) 박경 역석, 국역 빈호맥학 사언거요 기경팔맥고 부 맥결고증. 서울. 대성문화사. 1992. pp.209-210.

맥상이 여타 의경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등을 세 부적 논증의 순으로 진행된다. 셋째 ‘男女脈位’에 대해서는, 남녀의 생리 차이가 대단하지 않은데 『왕속화맥결』처럼 남녀가 좌우 尺脈이 다르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朱丹溪의 해석과 같이 남자는 寸盛尺弱하고 여자는 尺盛寸弱하여 尺寸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식으로 매듭을 짓고 있다. 넷째 ‘臟腑部位’에 대한 비판은 먼저 『난경』에서 말한 대로 5층 위에 따라 오장 맥위를 정하는 것이 옳으며 六位로 나눔은 오류라는 설, 이어서 左尺이 肝이 되고 右尺이 腎이 되며 兩關은 脾가 되어야 한다는 설, 그리고 兩手 寸關尺의 오장육부와 십이경이 모두 手太陰肺經 一脈으로서 그 안에서 分位하여 他臟의 기를 살필 수 있다는 논리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설 등 여러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왕속화맥결』의 분위가 임의적인 것일 수밖에 없음을 반증하는 식으로 진행된다.<sup>76)</sup>

이상의 비판에 장원소의 「진맥입식해」에 대한 고찰내용을 바탕으로 해명을 진행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왕속화맥결』이 표절로서 정통성이 없다는 주장은 장원소의 입장에서 보면 정반대로 오히려 『왕속화맥결』이 의경의 전통을 계승하였다는 점에서 ‘脈經’이 되어야 한다. 장원소는 『내경』의 天人相應 패러다임을 근거로 『난경』의 맥법을 운용하여, 華佗, 張仲景 등 名家의 病機-用藥 논리를 결합함으로써 『왕속화맥결』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으며, 그에 있어 ‘王叔和’란 이름은 오히려 張仲景과 ‘脈訣’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로 이해되고 있다. 장원소가 주석 내에서 『왕속화맥결』 가결을 인용할 때 ‘經云’이라 지칭한 곳이 다수 있음을 보면 그에 있어서는 『王叔和脈訣』이 곧 ‘脈經’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둘째, 七表八裏는 의경의 논리에 근거한 『왕속화맥결』의 大法으로서 부인될 수 없다. 칠표팔리의 음양 승강의 논리는 『난경』 맥법을 해석하여 도출된 것이지만 그 升降 논리의 근거는 『소문』의 「陰陽應象大論」 및 運氣篇에서 유래한 것으로 『本草』 역시 氣味 승강의 논법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장중경 三陰三

陽 用藥法 역시 『내경』과 『본초』를 계승하여 汗下라고 하는 승강 논리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왕속화맥결』의 칠표팔리맥법은 좌우 승강의 診脈을 고리로 음양 승강의 生病理와 기미 승강의 用藥法을 연결한 것으로서 醫經의 논리와 經方의 지식을 결합한 실천적 논리이며 변증론치에 기반을 둔 실용적 논리인 것이다. 따라서 칠표팔리가 의경에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불명료한 이해에 바탕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또한 맥의 변화가 음양으로부터 발생하므로 음양의 대대로 말하여 각각 그 유를 좇을 뿐이라는 논리 역시 맥의 본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고식적 주장일 뿐이다. 『내경』의 설명을 검토하여 보면 맥은 음양 이전의 陰陽渾然의 天真造化之元氣로서 원천 상에서 陰陽氣血의 待對형식을 초월하여 있다. 맥상에 있어 陰陽待對의 논리가 적용되는 까닭은 변증론치 상의 운용에 있어 허실사정의 이치를 主客의 상대 관계로 설정하여 논구하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맥상을 표현하는 문자가 그 자체로 고정불변의 진리인 것이 아니며 그에 함축된 원리를 해석하여 病機의 근원을 파악하는 것이 고인이 맥상을 설정한 취지인 것이다.

셋째 ‘男女脈位’는 문자 그대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입론취지에 입각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만일 ‘女人拜看’을 문자 그대로 남녀의 맥을 달리 보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맥에 그런 이치가 없으므로 오류가 분명하다. 따라서 丹溪學派에서 이를 『난경』을 인용하여 남자는 寸盛尺弱하고 여자는 尺盛寸弱하다고 해석한 것은 사실에 근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남녀는 반드시 문자 그대로 남녀 수준의 차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맥상을 통한 병리 해석에 있어 四時의 영향이나 五臟의 차이에 따른 음양승강의 편차를 반영하여 用藥治法을 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반면의 해석 가능성을 열어둔 취지로 넓혀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해석할 때 七表八裏脈 전체의 입론 취지에 부응함을 볼 수 있다. 무슨 말이나하면, 七表八裏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左陽升右陰降에 汗下를 적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입론되어 있으므로, 사시의 영향이나 오장의 편차에 기인하여 陽升陰降이 반대로 표현되는 경우는 이를

76) 박경 역석, 국역 빈호맥학 사언거요 기경팔맥고 부 맥결 고증. 서울. 대성문화사. 1992. pp.207-218.

반영하여 치법을 반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女人拜看’의 뜻이라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主客의 상대 논법은 맥상을 按診하여 病機를 추구하는 脈證參의 과정에서 해석의 논리로 대단히 중요하여, 주석 곳곳에서 그 적용례가 설명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면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넷째 ‘臟腑部位’에 대한 여러 해석들은 모두 자체로 일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맥의 본질에 대한 의미와 그에 입각한 『왕숙화맥결』분위의 본래적 성격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면 논란들을 넘어서는 것이다. 『왕숙화맥결』맥법의 해석에 있어 모든 맥법을 통괄하는 대법을 기준으로 하부 맥법이 이해되어야지, 역으로 하부 맥법의 원리를 상부 대법에 적용한다면 이는 케어맞추는 식의 궤변이 되어 모순과 혼란을 자초할 뿐이다. 진맥의 대법은 『소문』 「음양응상대론」과 運氣論에 표명된 天人相應과 主客相合의 논리에 기초하며, 그에 기반한 구체적인 맥법의 운용은 『난경』의 그것을 準用해야 한다는 것이 「진맥입식해」의 일관된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에 의거하여 지식과 실천을 결합해 나간다면 臟腑部位에 관한 모든 의심과 논란이 일면의 사실에 기초하여 대법에 혼란을 가져오므로써 스스로 진맥 자체의 성립기반과 그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이상 장원소 「진맥입식해」 내용 연구를 통한 결과 및 장원소의 해석에 입각한 『왕숙화맥결』의 비판 논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章句: 장원소의 「진맥입식해」는 주제에 따라 旨趣, 大義, 脈法, 病機으로 구분된다.

-旨趣: 올바른 진맥 학습 방법이 중요하다. 마음 차원의 깊이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맥상과 병기의 결합, 병기와 용약의 결합이 진맥 학습의 핵심 요령이다.

-大義: 맥의 본질은 天真造化의 元氣이다. 이는 맥의 심층인 五臟神氣의 升降이 표층인 血氣營衛의 出入의 動因이 됨을 뜻한다. 脈의 뜻이 이와 같으며

로 診脈은 辨證論治의 핵심이다.

-脈法: 제반 맥법은 『난경』의 그것을 준용해야 하며, 그 해석은 大義에 의거하여야 한다. 至冷數熱 臟腑汗下는 『왕숙화맥결』의 脈象-病機 연계 공식이다.

-病機: 脈은 오장을 주체로하는 神氣의 승강이므로 病機-用藥은 오행의 夫婦虛實邪正補瀉 원리에 따른다.

-왕숙화맥결』은 『내경』과 『난경』으로 대표되는 醫經의 논리와 『상한론』으로 대표되는 經方의 지식을 충실히 결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脈經’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장원소의 「진맥입식해」는 진맥을 중심으로 辨證論治 원리를 운용하는 논리적 근거를 밝힌 것으로, 진맥을 뛰어넘어 의학의 범례로 인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밝힌 바 「진맥입식해」의 진단 상의 의의를 중시하였기에 『찬도맥결』은 조선에서 부활하여 그 전승을 이어가게 되었으나, 반면에 『찬도맥결』의 학술이 ‘得之於心’ 즉 心得이라고 하는 형이상의 지점을 출발점으로 삼음에 따라 신비적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었기에 內醫院으로 표상되는 소수 秘傳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보기에 중국에서 지속적인 거부와 외면에 직면하였던 까닭 역시 합리성을 추구하는 중국 지식사회의 전통에서 이러한 心得의 모호한 차원이 받아들여지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조선은 이를 인정하고 비전의 좁은 길을 선택한 반면, 중국은 합리적이고 대중적인 성격의 지식을 추구하여 『최씨맥결』로 대표되는 별도의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어떠한가?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학술풍조에서 이러한 성격의 학술이 수용, 계승될 여지가 있을까? 心得을 신비적이고 우연적인 성격으로 규정한다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허준이 발문에서 “精思妙悟, 默識心通”이라고 말한 바와 같이 모든 합리적 인식의 기초로서 心 주체가 지니는 虛靈不昧한 지각의 가능성을 믿는다면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장원소의 권유대로 “行之於用”의 구체적인 실천에서 시작하여 “應之於手”의 감응 세계를 두드려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1. Gong TX original work, Li SH edit..  
Gongtingxianyixuequanshu -  
Shoushibaoyuan. Beijing.  
Zhongguozhongyiyao Press. 1999.  
李世華 等 主編, 龔廷賢 著. 龔廷賢醫學全書-  
壽世保元.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2. Huh J original work, Ahn SW edit.  
ChanDoBangRonMackKyulGipSeong.  
Daejeon. Korean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2014.  
안상우 편집, 허준 저. 찬도방론맥결집성. 대  
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4.
3. Huh J original work, Jin JP annot..  
Dong-uibogam. Seoul. Beopin Publishing.  
2005.  
진주표 주석, 허준 저. 대역 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2005.
4. Kim GB. 『  
ChabDoBangRonMakKyulGipSeong』. seoul.  
Hyundonghakdang Publishing House. 2005.  
김공빈 편역, 허준 저. 찬도방론맥결집성. 서  
울. 현동학당출판국. 2005.
5. Li C original work, Jin JP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eoul. Beopin Publishing.  
2009.  
진주표 역해, 이천 저. 의학입문. 서울. 법인문  
화사. 2009.
6. Liuwansu original work, Song NG edit..  
Liuwansuyixuequanshu -  
Suwenbingjiqiyibaomingji·Yuanmailun.  
Beijing. Zhongguozhongyiyao Press. 2006.  
宋乃光 主編, 劉完素醫學全書- 素問病機氣宜  
保命集·原脈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7. Lou Y original work, Jin JP annot..  
Yixuegangmu. Seoul. Beopin Publishing.  
2010.  
진주표 주석, 樓英 著. 의학강목. 서울. 법인문  
화사. 2010.
8. Ma JX et al. edit.  
Ribexiancunzhongguoxigouguyijicongshu.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99.  
馬繼興 등 편집. 日本現存中國稀觀古醫籍叢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9.
9. Park K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Binhumai xue. Seoul. Daeseongmunhwasa.  
1992.  
박경 역석, 국역 빈호맥학. 서울. 대성문화사.  
1992.
10. Shanghai Guji Publisher Shanghai shudian  
edit. Ershiwushi(9) -Jinshi. Shanghai Guji  
Publisher. 1995.  
上海古籍出版社 上海書店 編. 二十五史(9) -金  
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11. Sohn HY. A study of the Medical System  
in medieval Korea(From Ancient to early  
Yi-dynasty). Seoul. Suseowon. 1988.  
손홍열 저. 한국중세의 의료제도 연구. 서울.  
수서원. 1988.
12. Wang JS et al. original work, Liu CH  
edit. Nanjingjizhu. Beijing. Beijing Science  
and Technology Publisher. 2014.  
柳長華 主編, 王九思 等 輯. 難經集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14.
13. Yoon CY. SuWenRuShiYunQiLunAo.  
Daejeon. Korean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2007.  
윤창열. 素問入式運氣論奧. 대전. 한국한의학  
연구원. 2007.
14. Zhang YS original work, Kim Yj trans..  
Yixueqiyuan. Daejeon. Jumin Publisher.  
2003.  
김용진 등 편역, 장원소 원저. 현토완역 醫學  
啓源. 대전. 주민출판사. 2003.
15. Zheng JS. Haiwaihuigui  
Zhongyishanbengujicongshu(1)

- JiegulaorenzhuWangshuhemaijue,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2002.
- 鄭金生 主編. 海外回歸 中醫善本古籍叢書(1) -潔古老人注王叔和脈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16. Chung CW. A Study on 『Maekgyeolganoh』 written by Daedongbo. Daeje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2011.
- 정치욱. 戴同父의 『脈訣刊誤』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17. Eun SM. A study on the concept of pulse of the vital gate assigned on left or right by sex distinction.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5. 28(1)
- 은석민. 命門脈의 男右女左 개념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5. 28(1)
18. Heo J. Historical consideration of 『ChanDoBangRonMackKyulGipSeong』. Kyung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2009.
- 허중. 『찬도방론맥결집성』의 의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19. Heo J. The meaning of the publication of 『ChabDoBangRonMakKyulGipSeong』 and the accomplishment of pulsation in choseon dynasty. Kyung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Dissertation. 2006.
- 허중. 허준의 『찬도방론맥결집성』 편찬의 의의와 조선중기 맥학의 성취.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20. Jo DJ. A study on the writer of Bao Ming Shi(保命集).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1998. 11(2)
- 조대진. 素問病機氣宜保命集의 저자에 관한 고찰. 대한원전의학사학회지. 1998. 11(2).
21. Kim JH. Integrating Study of Kidney on Left & Life Gate on Right(左腎右命門) and Moving Energy between two kidneys(腎間動氣).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3. 29(4)
- 김진호. 左腎右命門과 腎間動氣의 통합적 이해를 위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3. 29(4).
22. Kim SH. A Study on Astronomy and Calender(天文, 曆法) appeared in 『Hwangje-Naegyeong(黃帝內經)』. Kyung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2006.
- 김신형. ≪황제내경≫의 천문·역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23. Kim YJ. The life and medical idea of Jang Won-So.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1990. vol.4.
- 김용진. 장원소의 생애와 의학사상. 대한원전의학사학회지. 1990. vol.4.
24. Lyu JA. A Study on The Recitation Test in Education of Korean Medical Classics.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8. 31(1)
- 류정아. 원전학 교육에서의 背誦 시험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8. 31(1).
25. Wang DM. Impact of Forged Old Book Handbook of Pulse in Verse on Pulse Theory Development after Song Dynasty. Nanjing. NanjingUniversity of Chinese Medicine. 2013. 14(2)
- 王大妹. 偽書脈訣對宋以後脈學發展的影響. 南京. 南京中醫藥大學學報. 2013. 14(2).
26. Xu SX. The effect of Maijue on the view of qi and blood in medicine of Jinyuan Dynasty. Jilin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09. 29(4)
- 許聖賢. 脈訣對金元醫學氣血觀的影響. 吉林中醫藥. 2009. 29(4).
27. Yoon CY. A Study about medical doctors

- of the school of Seowon.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3. 26(3)
- 윤창열. 西源學派 醫家에 관한 연구. 대한한 의학원전학회지. 2013. 26(3).
28. Zhang YW. A Study on the 『ChabDoBangRonMakKyulGipSeong』 . Kyung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2003.
- 장용우. 『찬도맥결방론집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29. Zhu CZ. The Neiyiyuan (Imperial Hospital) and Its Compilation of Medical Books in Chosun Period of Korea. China Journal of Medical History. 1998. 28(2).
- 朱承宰. 韓國朝鮮時代의 內醫院和醫書編纂. 中華醫史雜誌. 1998. 28(2).